

발간등록번호
25090-33246-44-98008

공공

www.airforce.mil.kr

2004.7 / 제313호

새롭게 부활하라!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현장탐방 / 공중 전투지원 평가대회

Zoom In / 공군박물관

영재

Contents

제313호 | 2004. 7



서해대교 상공을 비행 중인 공군 특수비행팀 「BLACK EAGLES」



공군소식 1 - 아주 특별한 비행



공군소식 2 -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 지휘자 김덕기

4	참모총장 스케치
6	공군은 지금
	생각해 봅시다
10	변화 : 개혁인가, 혁명인가
	WE ARE GOOD FRIENDS
13	역대 공군참모총장단, 주한 美 공군 장성 격려
	공군소식 1
14	아주 특별한 비행
	공군소식 2
16	새롭게 부활하라!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우리부대 명소
19	공군 교육사령부 비성공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20	지휘자 김덕기
	현장탐방
22	공중 전투지원 평가대회
	Zoom In
25	공군박물관
	화제의 공군인
28	쌍둥이 형제가 지키는 활주로
	세계의 항공무기
30	공대공 미사일
	세계의 우주력
32	『독일』의 우주개발
	테마가 있는 나들이
34	남해안 고도(孤島)에서 만난 윤선도의 숨결, 보길도 기행



그림 이야기	
300년 부자의 비밀	38
법률상식	
법에 대한 흔한 오해	40
건강 365	
여름철 건강 지키기	42
동아리 마당	
제1전투비행단 색소폰 동아리 『선봉 코러스』	44
문화마당	
7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46
마음으로 읽는 글	
내가 주인공입니다	48
영화 이야기	
투모로우	50
7월의 공군 역사	52
생활 속의 실천	
여름철 전기도독을 잡아라!	53
장병문예	
우리들만의 축제	54
책으로 읽는 세상	
연금술사	56
기상전망대	57
독자의 소리	58
다른 그림 찾기	61
보라매 단상	62
알립니다	63



국립현충원 참배 / 대전 보훈병원 위문



이한호 참모총장은 6월 6일, 제49회 현충일을 맞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호국영령 및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한 헌화와 참배를 실시했다.

이날 이 총장은 공군본부 부감실장과 계룡대 지역 부대장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6월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의 군인정신을 기리는 달임”을 강조하고 “우리 공군은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살신성인으로 조국을 지켜낸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살려 21세기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 번영의 초석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6월 4일에는 대전 보훈병원을 방문, 입원한 환자들을 일일이 위문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이한호 참모총장은 6월 7일, 계룡대에서 일본 항공 자위대 항공막료장 츠마가리 요시미츠 대장(TSUMA-GARI Yoshimitsu)을 접견, 한·일 군사교류 활성화 및 양국 공군간의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공군 최고지휘관, 군사교류 약속

재해재난 대비태세 점검

이한호 참모총장은 6월 15일, 제8전투비행단과 인근 관제대대·방공포대를 방문하여, 하절기 재해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절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대민지원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실 것”을 당부했다.





1 공군은 최근 이한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긴급 유류절약 대책회의」를 개최, 고유가에 따른 총체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했다.



2 탐부전투사령부는 6월 17일 대구·경북지역 보훈단체장 초청행사를 실시했다.



3

지난 6월 15일 수원시 팔달로 인근 공사현장에서 6·25당사 사용했던 260파운드 불발탄이 발견되었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10전투비행단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이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모습



4

21개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258전술공수비행대대

5

제19전투비행단은 6월 11일 충주소방서와 합동으로 군·관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6

제20전투비행단은 서산시 직곡면에 위치한 자동차 공장에서 테러에 의한 복합재난에 대비하고 인명구조 및 수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민·관·군합동 대테러훈련을 실시했다.



7

제18전투비행단은 6월 17일 장병부모 30여 명을 부대로 초청, 「병영 바로알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8

제3훈련비행단은 6월 15일 주임원사단과 내무실장단 총 76명이 모인 가운데 주임원사·내무실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9

군수사령부 장병 300여 명은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대인근 농가의 영농활동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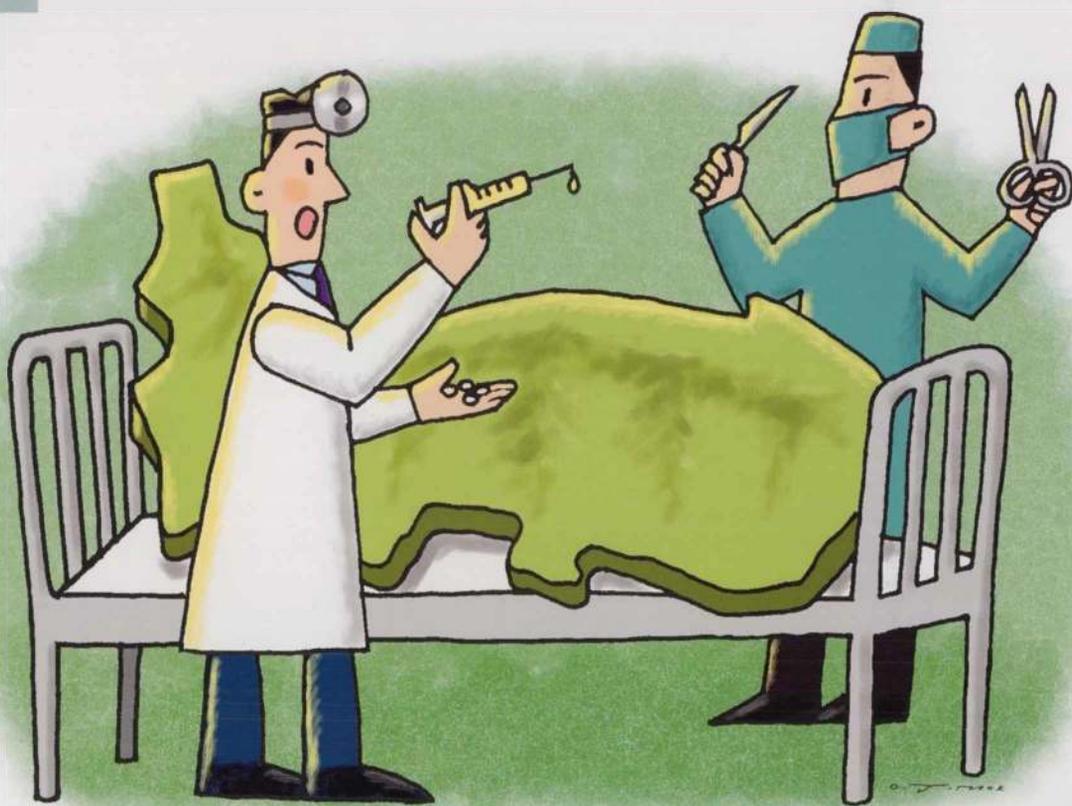
10

농번기를 맞아 부대인근 농장에서 양파 수확을 돕고 있는 제16전투비행단 장병들

11

공군사관학교는 6월 15일 청주 동부경찰서의 요청으로 교통의경 26명을 부대로 맞이해 교통 수신호 교육을 실시했다.





변화 : 개혁인가, 혁명인가

공군사관학교 소령 박 봉 규
(교수부 법정학과 정교수)

변화의 시대, 변화란 무엇인가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다. 신문이나 방송 할 것 없이 심지어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정부나 관료 조직, 군대에서까지 변화는 표현을 달리하는 어휘들과 어우러져 화두를 장식하고 있다. 변화는 형태를 달리하여 개혁, 변혁, 혁신, 쇄신, 나아가 혁명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도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군 변혁(Military Transformation) 등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변화의 표현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방향 지우는 반면에, 다양한 어휘 수만큼이나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변화에 대한 생각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변화는 무엇인가? 변화가 감지할 수 있는, 혹은 감지되어지는 실체인가, 실체라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가? 변화의 척도는 무엇이고 과연 현실이 변화했는지, 변했다면 얼마나 변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다보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현실과 대비되면서 변화가 쓸데없는 몸부림이요 때로는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변화에 대한 가치 판단마저 어렵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과연, 변화가 좋은 것일까? 그렇다면, 전통은 또 무엇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머리 속에서 영키기만 할 뿐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변화의 두 가지 모습, 개혁과 혁명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바로 변화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변화라는 어휘 그 개념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영킨 문제일수록 원칙과 원론으로 돌아가는 까닭이다. 일단, 변화라는 것은 속도와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변화의 속도에 따라 변화는 점진적 변화와 급진적 변화로 나뉘어지며, 정도에 따라 부분적 변화와 전체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변화의 경우에는 변화의 조짐조차 느끼기 어려운 반면에, 급격하고 총체적인 경우에는 매우 실감이 날 것이다. 전자의 경우, 과거와의 연속적인 면이 더 많을 것이고, 후자는 단절적인 면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는 연속성과 단절의 요소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변화의 정도 차이는 이들의 조합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완전히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지양(止揚)이라는 변증법적 개념도 결국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변화는 방향성을 제외한다면, 연속성과 단절의 정도에 따라 개혁과 혁명으로 양분되어진다. 연속성의 요소가 우세한 것을 개혁, 단절의 정도가 압도적인 것을 혁명으로 정의한다면, 개혁과 혁명이 결국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천의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날 수 있다.

변화 대상으로서의 현대 사회

한편, 변화에는 대상이 있을 것이다. 현대의 변화 대상은 현대 사회이다. 대상으로서 현대 사회를 바라볼 때, 현대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세계화(globalization)가 횡행한다고 해도 그 내면은 분권화(decentralization)다. 이는 전체와 부분이 갈수록 더 내밀하게 관련됨을 의미한다. 모든 부분이 각자 나름대로 역할을 다해야 전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기체의 속성이 갈수록 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Plato) 이래 인간사회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한 것은 여전히 강력한 비유적 의미(metaphor) 이상의 분석적 효능을 갖는다. 개혁과 혁명의 대상은 변화해야만 하는 대상을 전제한다. 따라서, 변화의 대상인 현대 사회를 인간의 몸에 견주는 것은 나름의 일리가 있다.

변화를 위해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

변화의 대상으로서 인간 몸 상태를 전제할 때, 『암』(cancer) 이상의 대상이 없다. 『암』이라는 것은 분명히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흄(D. Hume)과 버크(E. Burke)가 언급했듯이 사회의 관습(convention)



과 편견(prejudice)은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한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사회가 심각한 문제에 처했을 때), 일단 단기적인 대안은 수술(혁명)일 것이다. 적어도 근시일 내에 변화의 대상을 확실히 다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술(혁명)이 인간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암 수술 후 대부분 생존 기간 5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대부분 오래 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다. 삶의 질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수술로 인한 효과는 생명 연장이다. 반면에, 수술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암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려는 동양적 의술 내지 대체요법(개혁)은 당장은 미지근하고 효과도 적다. 하지만, 치료에 성공한다면 제명까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근본적인 병인(病因)부터 치료하라

사실,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습관과 생활(여기서는 병인(病因)의 소산이다. 수십 년 걸린 것을 단 시간에 해결하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 또한, 근원적인 생활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수술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물론, 수술 후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그보다는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혁명)은 유기체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모든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유기체적 존재에서 부분의 손상은 적어도 전체를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보다는 부분을 살리면서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근원적이고 우월하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혁명)보다

대체요법(개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기간의 수술보다 괴롭고 힘든 방법이다.

참여 속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적어도 조직 사회에서 조직의 변화를 도모한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러기에, 좌절한 사람들은 쉽사리 극단적인 혁명 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변화가 어려운 만큼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중단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개혁이다.

멀리 보라. 그리고 실천은 한 걸음부터

개혁과 혁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고 논박할 수도 있다.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혁명이라고 한다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먼 미래를 향한 조그만 실천인 개혁은 실로 미흡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개혁이 가져오는 과실은 크다. 무엇보다 어느 일부분도 배척하지 않으므로 제 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빠르고 급하고 단절적인, 그래서 쉽게 고갈되는 혁명보다는 느리지만 연속적이고 배제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개혁이 보다 조화롭다는 것이다.

지금 운위되는 많은 내외의 변화에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머리는 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발이 딛고 있는 자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역설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멀리 내다보면서도 작은 실천에 진력하는 그러한 태도야말로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㉞

16 JUNE 2004

Hosted by Society of Former ROKA Chief of Sta



김창규 前 참모총장의 축배 제의

역대 공군참모총장단, 주한 美 공군 장성 격려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공감대 마련

역대 공군 참모총장단(회장 김창규, 5대 참모총장)에서는 6월 16일 공군회관에서 주한 미 공군 장성들을 공군회관으로 초청,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주한미군 재편성과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 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 연합 방위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공군이 협력적 동반자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미 공군은 동맹관계의 모범적 사례

주한 미 공군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은 트렉슬러(Garry R. Trexler) 미 7공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부사령관인 애킨스(Dana T. Atkins) 준장, 제51전투비행단장 포시스(Maurice H. Forsyth) 준장,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 케인(Thomas P. Kane) 소장(진) 등 4명.

이 날, 한·미 공군의 행사 참석자들은 '53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양국 공군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깊은 신뢰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맹관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했다.

한·미 동맹,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김창규 前 공군참모총장은 역대 총장들을 대표하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 유지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해 온 주한 미 공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에 트렉슬러 미 7공군 사령관은 평소 주한 미 공군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 공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지난 50여 년 동안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 한·미 군사 동맹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역대 총장들은 공군의 최고 지휘관을 역임하며 쌓아온 풍부한 군사적 식견을 바탕으로 미 공군 장성들에게 『협력적 자주 국방』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전달하는 등 군사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⓪



아주 특별한 비행

공군본부 중위 정연석

지난 6월 2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서는 아주 특별한 비행이 있었다. 모형항공기대회 경북 북부지역에 참가하였던 안평중학교 신평분교 학생 7명이 바로 이번 특별한 비행의 주인공들.

안평중학교 신평분교는 경북 의성군 신평면 중물리에 위치한 안평중학교의 분교로, 전교생 7명에 교직원이 9명인 조그마한 시골 중학교이다.

전교생 7명, 교직원 9명

신평분교는 선생님이 학생보다 더 많다. 1:1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각각의 소질과 꿈을 키워주기 위해 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다. 신평분교 학생들이 유난히 흥미를 보이는 분야는 바로 과학분야로, 제16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경북북부지역 예선대회」에 전교생인 7명이 모두 참가, 5명이 공군사관학교에서 치러진 본선 대회에 출전하

였고 그중 4명이 당당히 수상을 하였다.

꿈☆은 이루어진다

신평분교 아이들이 공군부대에 방문하여 실제 항공기를 타게 된 것은, 학생들의 항공과학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한 이한호(李漢鎬)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이 총장은 신평분교 학생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 모형항공기대회의 수상을 축하하고, 6월 2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 이들을 초청하여 비행단 견학 및 T-59(Hwak) 항공기를 직접 타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산골 아이들, 제트기 타다!

신평분교 아이들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 조종사들과 하루를 보내며 조종사의 임무와 생활, 비행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으며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폭넓은 경험을 하였다. 조종사들의 상징인 『빨간마후라』도 목에 두르고, T-59 시뮬레이터에도 탑승해 보는 등 파일럿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T-59(Hwak) 고등 훈련기에 직접 탑승, High-Taxi(항공기 지상할주)를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도 주어졌다. 항공기가 최대 출력으로 속도를 증가시켜 자연적으로 공중에 부양되기 직전, 출력을 줄이는 이 High-Taxi는 산골 아이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10년 만의 재회

한편, 신평분교의 과학 지도교사 유영종 선생님은 이날 아주 반가운 손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안평중학교 재직 시절, 자신이 2년 동안 담임을 맡았고, 또 3년 내내 과학을 가르치던 제자 권영란 중위를 만난 것이다. 권 중위는 공군사관학교 49기 첫 여생도로서 금녀의 벽을 허물고 사관학교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영종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현재 권 중위는 제20전투비행단 정훈장교로 복무 중이다. 이날, 권 중위는 **李** 총장의 특별한 배려로 신평분교 학생들의 안내 장교 역할을 맡아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수학여행을 대신한 추억

신평분교 학생들은 다른 또래의 학생들이 흔히 다니는 수학여행을 쉽게 갈 수가 없었다. 학교 학생수가 워낙 적었고, 어려운 시골 사정 때문에 몇 차례 계획되었던 수학여행마저 접어야만 했던 것이다. 신평분교의 오점룡 교감선생님은 수학여행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이들에게 이번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견학하고, 또 비행기까지 태워주어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며 행사를 주관한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빨간마후라의 꿈을 키워라

이날 기지를 견학하던 학생들은, 틈만 나면 안내 조종사들에게 그들의 생활과 조종사가 되기 위한 방법 등의 질문들을 퍼부어 댔다. 심지어 여학생들도 공사 여생도로 입교할 포부를 내비쳤고, 장차 자신이 탈 항공기라며 귀를 세우고 설명을 듣기도 했다. 또, 교관 조종사들에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를 건네, “내 제자로 들어오면, 훌륭한 조종사로 키워내겠다”라는 교관들의 다짐을 받고 돌아갔다.

견학을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평분교 아이들은 내년, 후년에도 모형항공기대회에 참가할 것이고, 훗날 멋진 조종사가 되어 제16전투비행단을 다시 찾으리라 다짐하며 돌아갔다. 또한, 신평분교에 대한 기사를 통해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했다는 한 모형항공기 재료 제작 회사는 매년 50개의 모형항공기 재료 세트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왔다.

내년 모형항공기 본선대회에서도 신평분교 예비 조종사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



새롭게 부활하라!

1954년 「부활」호의 명명식 모습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군수사령부 소위 박 준 하

우리나라 국산 1호 항공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를 기억하고 싶어한다. 지난 2002년 월드컵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거둔 월드컵대회 참가 사상 첫 승, 국산 1호 자동차 「시발」 자동차, 식당들마다 별이는 「원조」 경쟁 등. 우리는 이렇게 「1호」 혹은 「원조」 등의 명칭을 붙여가며 「처음」을 특별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 우리나라 국산 1호 항공기는 무엇일까? 그 동안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 보기는 했을까? F-15, F-16 등 외국에서 비행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 비행기를 만들거나 했을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혹은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KT-1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자랑스럽게 6·25전쟁의 막바지에 이미 우리는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를 제작, 당당히 하늘에서 비행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부활을 위한 첫걸음

지난 9일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에서는 50여 년 동안 학교 지하창고에서 잠들어 있던 부활호를 완전복원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써, 현재 기골(뼈대)만 남아있는 부활호를 인수하는 행사가 있었다.

인수 후 복원작업은 공군군수사령부 81항공정비창이 맡아 '53년 제작당시 원형그대로 복원하게 된다. 당시, 각 방송사, 신문사들은 이 인수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부활호가 인수를 위해 지하창고에서 꺼내져 나오는 순간, 언론사 기자들을 비롯해 인수식을 참관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 여기저기에선 낮은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50여 년의 세월을 이겨낸 철골의 무게와 질감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는 그 역사적 의미만큼이나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부활호에 대한 질문들이 쇄도했다.

특히 이날 인수행사에는 '53년 당시 부활호를 제작을 주도하였던 이원복 씨와 문용호 씨가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당시 각각 공군 소령과 일등중사였던 두 분은 78세라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인수행사장에 참석했다. 제작당시의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분은 마치 어제의 일인 양 너무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휴전협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53년 6월, 공군기술학교 김성태 교장이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나에게 비행기 설계 제작을 요청했어요.

서울대 항공공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설계도를 만든 뒤 여름방학 동안 미 공군에서 부품을 받아 4개월만에 완성했죠. 첫 시험비행에 성공할 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라며 이원복 씨는 회고한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견된 '부활'호

잠에서 깨어난 부활호(행방불명 후 발견되기까지)

50여 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던 부활호가 발견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다.

'53년 제작 후 '54년 4월 3일 명명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활'이라는 휘호를 하사받은 뒤 부활호는 돌연 행방불명되었다.

“명명식을 치르고 1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와 보니 '부활'이 행방불명됐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35년이 지나서야 미 공군 군사고문단에서 '부활'을 시험평가하기 위해 미국 본토로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이원복 씨는 그 후 '부활'이 미국 항공기 제작 회사인 세스나社로 들어갔다는 풍문을 듣고



이원복 씨가 인수현장에서 '부활'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81창 정비사들이 '부활'호의 동체를 운반하고 있다.



여러 방면으로 세스나社에 조회했으나 알 만한 사람도 없고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한편, 2003년 12월 10일 라이트형제 10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될 즈음, 중앙일보 심재우 기자는 우리나라 항공史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없을 까하고 수소문을 해 보던 중 우연찮게 이원복 씨를 만나 부활호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 이로써 예전에 우리가 자체 기술로 제작하고 시험비행도 성공했던 부활호의 존재가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부활호의 존재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현존하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었다.

부활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를 찾습니다」(2003년 중앙일보 12월

17일자)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가고, 그 기사를 본 대구 경상공고 퇴직자로부터 학교 지하창고에 부활호가 있다는 제보를 받는다. 이로써 역사속으로 사라질 뻔한 부활호는 극적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제보자에 의하면 부활호는 명명식 후 정찰 및 훈련용으로 쓰이다가 항공대학(현 경상공고 자리)으로 옮겨졌고, 항공대학이 이전을 하면서 학교 지하창고에 남게 된 것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엔진과 부품 등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지금은 비행기의 뼈대만 남아있지만 비행기 동체 부분에 적힌 글자 「復活(부활)」만큼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빛나고 있었다.

앞으로 부활호의 복원계획

부활호는 약 5개월에 걸쳐 복원작업을 실시한 후, 1953년 제작당시 최초 시험비행성공일인 10월 11일에 맞추어 81장에서 복원기념행사와 함께 복원항공기 시동 및 이동시범을 할 예정이다.

우리 항공사에 큰 이정표임에도 학교 지하창고에서 쓸쓸히 잊혀져 버릴 수도 있었던 부활호가 다시 발견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큰 행운이다. 아니 너무나도 운명적인 만남이다.

앞으로 완전 복원되는 부활호는 우리 항공사의 새로운 부활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



국산 1호기 「부활 호」의 설계·제작 모습



공군 교육사령부 비성공원

교육사령부 소위 허 봉 회

공군 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 정문을 들어서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탑과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밭, 각종 전시용 항공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교육사를 처음 찾은 이들이라면 반드시 한번씩은 눈여겨 살펴보고 가는 이곳, 바로 교육사의 명소 『비성공원』이다.

비성공원의 상징, 비성탑

1989년 12월에 조성된 비성공원 한가운데는 솟아오르는 공군의 기상을 상징하는 비성탑이 높이(약 30m) 치솟아 있다. 비성탑 상단의 둥근 반원형은 일정한 경지에 도달한 공군 조종사들의 조종술인 회전 비행, 그리고 공군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구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첨예화된 기술 공군을 의미한다. 하단 부분의 7인 군상과 5인 군상은 조종사, 정비사, 통신사 등 공군 구성원 모두가 공군의 주역으로서 혼연 일체가 되어 기쁨으로 임무완수에 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항공기 전시장

주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제트기

인 F-86을 비롯해, 헬기와 미사일, 북한의 주력 전투기였던 MiG-19기 등 20여 종의 항공기가 자리잡고 있어 우리 공군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항공기들은 실제 전장과 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기체들로서 지금은 항공기 역사 공부의 소중한 자료로서 그 임무를 다하고 있다.

활기를 잃지 않는 지역의 명소로

아름다운 조경과 넓은 잔디밭을 자랑하는 비성공원. 봄이면 벚꽃축제의 향연이, 여름에는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기념식 등이 치러지며, 가을엔 인근지역 학생들의 현장학습이나 백일장 장소가 되어 주기도 한다.

벚꽃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른 봄부터 단풍이 우거지는 늦가을까지... 그래서 비성공원은 실 틈이 없다. 면회객들과 견학 온 학생들, 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로 활기를 잃지 않는 곳. 비성공원은 이제 명실상부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지휘자

김덕기

서울대 음대 교수 병 228기

객원기자 오 경 수

첫 인터뷰를 나가게 된 기자는 약속된 날짜가 다가오면서 점점 설렘과 함께 『지휘자』와 『공군』. 뭔가 그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한 호기심을 가득 안고 한여름 같은 더위가 밀려온 6월의 어느 오후, 군포시민회관에 자리잡은 Phil Harmonic Orchestra의 연습장을 찾았다. 땀에 젖은 티셔츠와 편안한 바지 차림의 교수님은 반갑게 기자를 맞이해 주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휘자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김덕기 교수님. 교수님의 첫인상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공연현장의 열기와 정열이 그대로 묻어나면서도 어딘가 푸근하고 편안함이 함께 느껴졌다.

전투기·군사학 마니아

연습이 끝난 후 교수님과 함께 수락산 자락의 한 카페로 자리를 이동했다. “아직도 공군지가 나오는군요. 나 현역시절에 참 즐겨 봤거든. 잡지에 실린 각종 전투기 정보와 군사과학 내용을 제일 좋아했어요.” 교수님께서 건네신 첫 말씀은 놀랍게도 이런 것

이었다. 음악가이신 교수님께서 전투기와 군사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혹시나 『빨간마후라』의 전투 조종사를 꿈꾸셨던 것은 아닐까? “사실은 아버지께서 육군 군악대장으로 제대를 하셨어요. 난 음악을 공부해서

군악대를 지원했는데 육군으로 가면 아버지 빛을 볼 것 같더라고... 그런 이유도 있었고... 내가 또 전투기 같은 기계를 참 좋아하거든. 사실 그래서 공군이 더 끌렸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 공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참 많은데... 나랑 요즘 공군 이야기 좀 해요” 함께 취재 온 편집장교를 붙들고 항공무기에 관한 얘기를 나누시는 교수님. 교수님께서서는 공군 전투기의 역사와 과정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계셨고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며 대화를 나누셨다. 이러한 교수님의 모습에서 교수님과 공군의 연결고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

군 생활, 힘들었지만 뜻깊은 시간들

야외 카페에 어스름이 내릴 즈음 교수님께서서는 기자 일행을 택으로 초대해 주셨다. “난 군악대에서 음악 편곡을 많이 했어요. 자료 수집하고 악보, 그리고 군악대 연주도 하고... 전천후 군악대원이었지. 현역 시절에는 백령도 등 전국으로 공연도 다니면서 참 즐겁게 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육·해·공군 군악대를 다 모아서 국군의 날 기념인가로 공연을 준비했던 적도 있었는데 내가 그 공연을 담당해서 연습시키고 그랬거든. 굉장했어요. 규모도 컸고... 공연을 하고 나더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웃음)” 교수님께서서는 간직해오던 군 생활 앨범을 꺼내 보여주시면서 당시의 많은 기억들을 더듬어 이야기해주셨다. “군대에 와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사회성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쉽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 내가 많이 성숙해지는 것을 느꼈고 진정한 친구도 얻는 기회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 때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거든. 뭐, 전우(戰友)까지는 안되겠지만... 하하”

바로 「오늘」을 충실하게

인생의 선배이자 공군 선배님으로서 또 늘 학생들과 함께 지내시는 교수님으로서 젊은 공군 병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여쭙어 보았다. “유학시절에 문득 나는 단 하루도 「오늘」

을 살아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뭔가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왔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늘 소홀하게 지나쳤었고... 앞으로 달리기에만 급급했던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부터 「오늘」에 충실하자 마음을 먹었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말이 너무나 상투적이긴 하지만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마냥 즐거워지더라고요. 연습도 어떤 목표를 향한 훈련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즐기게 되니까 훨씬 더 재밌고 열정도 생기더라고... 그 힘으로 정진하게 되니 더욱 잘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알차게 보낸 하루하루가 모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목표도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리기에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군대 생활도 발목이 묶인 느낌이겠죠? 그래서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오늘에 충실하게 살자.」 이거예요. 2년여의 시간도 하루하루를 알차고 즐겁게 보내다 보면 결국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시간인데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웰빙 아니겠어요?(웃음)”

작은 지휘봉 하나로... 음악도, 인생도 Harmony!

교수님 택을 나서면서 기자는 머리 속 맞춰지 지 않던 퍼즐을 완성해 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작은 지휘봉 하나로 커다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내시는 지휘자로서, 전투기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공군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공군 선배님으로서, 학생들에게는 푸근한 아버지, 때로는 친구 같은 편안함을 보여주는 교수님으로서... 김덕기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양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교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서는 조만간 공군 군악대를 방문하셔서 지휘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에 흔쾌히 응해주시면서 일행을 배웅해주셨다. ㊦



항공무기정비사 최대의 축제 공중 전투지원 평가대회



제8전투비행단 중위 이 두 열



공중 전투지원 평가대회(이하 공전평)는 항공무기정비사의 정예화 및 종합 전투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행사로 그 역사가 25년에 이른다.





에엥~~~~에엥~~~~

2004년 6월 8일 오전 10시 30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다.

“전달, 전달. 현재 시간 00시부터 긴급귀환 및 재출동 훈련발령. 전 요원은 즉시 각자의 임무위치로 신속히 이동하라”

평온하던 주기장에 갑자기 비상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서 장비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진다. 항공기 착륙 후 재이륙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 이내. 촌각을 다투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요원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난다. 일순간 긴장이 감돈다.

잠시 후 전방 모처에 방공임무를 마치고 F-5E 제공호가 귀환한다. 연료 및 탄약이 다 떨어진 상태. 지상에 대기하고 있던 정비요원이 항공기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동안 무장장착 요원들은 탄약을 준비한다. 정비요원의 O.K 사인이 떨어지자 무장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무장을 장착한다. 이번엔 탄약 한 발로 축구장 하나 크기를 초토화시키는 확산탄이 주무장이다. 이윽고 무장장착이 완료되고 항공기가 이륙한다. 30분이 채 안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지난 6월 8일부터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제8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된 공중 전투지원 평가대회 시범훈련 모습이다. 공중 전투지원 평가대회(이하 공전평)는 항공무기정비사의 정예화 및 종합 전투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행사로 그 역사가 25년에 이른다. 공전평은 초기 무장분야의 『전술무장 능력 평가대회』와 정비분야의 『항공기 정비질 향상경연대회』로 분리되어 개최되었으나 1995년부터 『공중 전투지

원 평가대회』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회 평가항목은 항공기 점검, 항공기 긴급귀환 및 재출동(무장장착 및 항공기 점검), 탄약 및 유도무기 조립이다.

역대 최대규모, 뜨거운 대회 열기

공전평은 매년 각 기지를 순회하며 개최되는데 올해 개최지는 제8전투비행단이다. 이번 대회 참가규모는 역대 최대로 최첨단 항공기인 KF-16을 비롯하여 국산 항공기인 KT-1까지 총 12개 기종 24대의 항공기 및 250여 명의 정비·무장요원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공전평은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평가항목 및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대회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귀환 및 재출동시 기존에는 천편일률적으로 Mk-82를 장착한 반면 올해는 기종별로 실전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각 기종별로 임무특성에 맞는 폭탄을 장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폭탄 및 유도무기 조립 역시 기존의 감점방식에서 최단 시간 내에 완료하는 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준비는 한달 전부터

대회 준비는 약 한달 전부터 대회 참가조 및 개최기지 준비요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진다. 보통 참가기지별로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여 최고의 조를 구성한다. 대회참가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에 선발된 조원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대회를 준비한다. 준비하는 중간중간 1, 2, 3차에 걸쳐 자체 평가를 받는데 그 때마다 경험 많은 선임자들의 호된 질책을 듣곤 한다.

개최까지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일단 평가시 사용할 장비, 탄약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참가요원들이 묵을 숙소 준비 및 숙소에 필요한 비품까지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처음으로 여군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대회의 막은 오르고

대회 참가자들은 개회 하루 전인 6월 7일 전개하였다. 대회 참가를 위해 공수해 온 장비들을 하역하는 모습에서 묵직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타기지에서 온 동기 및 선·후배를 만나는 반가움에 긴장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회 첫째날은 아침부터 변덕스러운 기상상황으로 인해 실내행사로 계획됐던 개회식이 실외행사로 변경되었고, 사관학교에서 전개 예정이었던 T-41의 전개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KT-1 및 KF-16 전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날은 대회 사상 처음으로 여군 부사관이 항공기 정비요원으로 참여하여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에 관람하는 타기지 참가요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과 비교하는 등 나름대로 긴장된 모습이였다. 탄약 및 유도무기 조립은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조장의 힘찬 구령과 함께 빠르지만 정확하게 탄약 조립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참관하는 모든 인원들은 찬탄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공군의 주요 항공기가 한자리에

둘째날은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였다. 무려 12대의 항공기가 전개한 주기장에는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었다. 지원기도 참여하였는데 HH-47기는 착륙시 잔디밭에 있는 온갖 물질(풀잎에서 조그만 나무 줄기에 이르기까지...)들을 주기장으로 옮겨놓는 바람에 행사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하였다. 덕분에 시누크 특유의 직렬식 쌍발로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F-4E, F-5E, KF-16C 등 주요 전술기들이 일렬로 주기되어 장관을 이루었다.

내년을 기약하며

실질적인 평가는 셋째날 오전에 종료가 되었다. 오후에는 전 참가요원들은 블랙이글 에어쇼를 감상하면서 그 동안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관람 종료 이후 본 대회보다 더 긴장감 넘치는 대회가 펼쳐졌다. 바로 기지별 족구대회가 그것. 비록 우승자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족구경기를 통해 대회 기간 동안 선의의 경쟁자였던 참가조 모두 항공무기정비사라는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시상식은 대회 마지막날인 금요일에 실시되었다. 참가조 모두 최선을 다한 대회였지만 영예의 종합우승은 제17전투비행단의 몫으로 돌아갔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제1전투비행단을 마지막으로 전 참가요원이 기지로 귀환하였다. 참가조, 개최까지 준비조 모두 최선을 다한 행사였기에 표정만은 밝았다. 이들이 내년을 기약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에서 항공무기정비사들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 🚀





반세기 공군 역사를 한눈에

공군 박물관

객원기자 남 주 미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요즘에야 어디서든 디지털 카메라로 일상을 찍어 보 관할 수 있게 되었지만 0과 1 디지털 신호의 조합물이 어찌 빛바랜 사진첩 속 한 장의 사진만 할까. 커다란 안경에 굳은 표정을 한 꼬마들이 줄줄이 앉아있는 초등학교 소풍 사진을 보면 당장에라도 그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이 사진이 없었다면 이 친구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기록을 통해 기억을 남겨두려는 마음은 더욱 소중하게 빛나기 마련이니.

국내 유일의 항공군사전문박물관

그런 기억에의 노력을 공군박물관에서 만났다. 공군박물관은 1979년 서울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캠퍼스에서 공군 선배들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한 『공군기념관』으로 출발했다. 이후 1985년 12월 지금 있는 청주 캠퍼스로 옮기면서 공군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약 4천여 점에 달하는 항공관련 전문자료와 유물, 야외 전시장에는 실물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는 등 국내 유일의 항공군사전문박물관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기자가 공군박물관을 찾아갔던 날은 휴일을 맞아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한산했지만 평소에는 사관학교를 방문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넓고 깨끗하게 잘 구성된 관내를 보니 장병들이나 사관생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에게도 충분한 정보와 흥미를 제공할 수 있을 듯 했다. 특히 전시물에 가까이 다가서면 그 역사와 의의에 대한 안내를 들을 수 있는 음성자동안내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조용한 실내에 울려 퍼지는 낭랑한 목소리! 친절한 공군박물관 자동안내 성우님, 그대의 자상한 소개로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답니다^^

공군 역사를 한눈에, 1층 공군역사관

1층은 공군역사관으로 꾸며져 있다. 이 곳에서는 태동기부터 현재까지의 공군의 모습을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히 태동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군 비행가들의 사진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놀라웠다. 6명의 최초 비행가들은 일찍이 상해임시정부 시절부터 공중전의 중요성을 간파한 선각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곧 1940년대 공군의 창설까지 이어졌다. 전시관에는 창설 초기 장군들의 훈장을 비롯한 유물이 기증되어 있었는데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공군발전의 초석을 일구기 위해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후대의 노력이 모두 담겨있었다.

창설기 공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6.25관이 이어진다. 여기선 한국전쟁 당시 용맹한 공군의 활약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전쟁은 아픈 기억이다. 한 민족끼리 총 끝을 겨누어야 했던 돌이키기 힘겨운 기억. 물론 용감하게 싸운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겠지만 여전히 전사자 명단의 이름들을 바라보는 일은 괴롭다. 병력과 장비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출격했을 이들의 편지와, 사진과, 훈장을 보고 있자니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것도 아픈 과거 위에 세워진 행복한 현재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슴 아픈 전쟁의 기억 6.25관, 월남·걸프전관을 지나 현대관에는 빼어난 전투기 모형들도 있었지만 제일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전투 조종사의 생환 장구류 세트 전시물이었다. 불의의 조

난 사고로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을 하면 구조되기까지 조난 지점을 알리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주요 생환 장비들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무전기, 수중 나침반에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물품들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다. 『상어 겁주는 물감』이라니. 장비들의 용도에 신기해하는 기자에게 동행한 월간 <공군> 편집장교가 정색을 했다. 바다에서 조난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구조되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협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생환 장비라 한들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아이고, 몰라보아 죄송합니다.

사관생도 입교에서 졸업까지, 2층 공사(空士)관
2층으로 올라가 보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다시 태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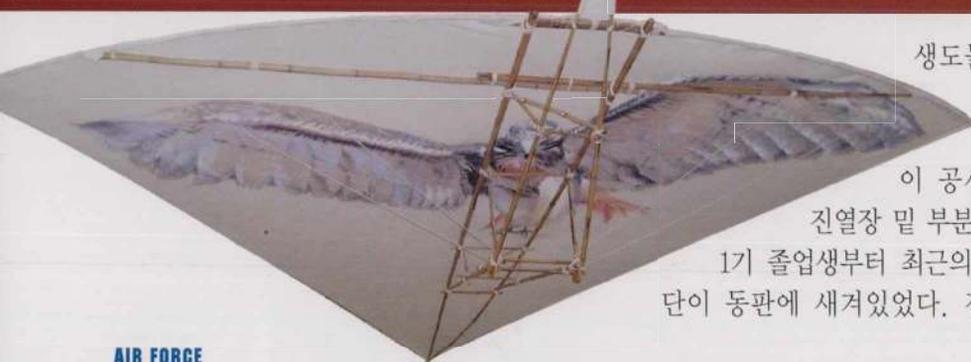


▲ 공사 생활관



▲ 항공기 도입 연표 관람

▼ 선조들이 만든 비차 복원 모형



생도들의 감격과 환희가 담긴 초대형 유희가 이곳이 공사관임을 알린다.

진열장 밑 부분에는 1951년 공사 1기 졸업생부터 최근의 졸업생까지의 명단이 동판에 새겨있었다. 전시관을 빙 둘러



(上) 모형도 관람 (中) 부대 상징관 (下) 생도내무반

가득한 졸업생도 명단을 보고 나서 진열장 안 목판에 써있는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현재 공군사관학교 교훈을 대하니 문득 졸업생도 이름들이 대변하는 한 명 한 명의 생도들의 얼굴이 궁금해졌다. 이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이 뜨거운 결의가 남아 일렁이고 있을까.

공사관에서는 내무 생활과 동아리 활동, 교지, 공사 신문, 졸업 반지와 생도 배치 실물과 더불어 생도복의 변천사, 삼사체전 훈련과 응원을 연습하는 모습 등 생도들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었다. 검색으로 대표되는 여러 종류의 생도복은 변화를 거듭할수록 세련되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각 시대상을 반영하는 과거의 생도복들도 당시에는 패션을 선도하는 멋진 공사생도들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약간 빛이 바랜 과거 생도복 모형에서 흘러나오는 옛 정취. 추억은 방울방울!

세심한 정성으로 소중히 보존한 공군역사

사실 이외에도 공군박물관에는 다채로운 전시물들이 가득했다. 각종 무기와 항공기 엔진 모형, 생도 내무반 모습을 옮겨온 전시관, 실물을 그대로 축소한 공군본부 및 사관학교 모형과 각종 트로피와 문서 등 공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관람객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야외 항공기 전시장에는 평소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전투기와 항공기들이 전시되어 있어 공군 창설 이후 사용되었던 항공기들의 실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다 현대화된 박물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신 시청각 장비를 도입한 공군 위력영상관과 터치스크린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단지 일반인 관람객으로서 아쉬운 점이라면 공군사관학교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는 물론 전시물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에 필연적인 점이지만, 그렇다면 보다 많은 홍보와 노력으로 우리나라 공군과 공군사관학교, 항공군사 분야에 애정과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는 공군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렇듯 세심하고 다채로운 기록으로 남겨둔 소중한 기억들은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일 테니까. Ⓡ



경비소대에서 근무하는 인준(형)

쌍둥이 형제가 지키는 활주로

제10전투비행단 소위 박진근



AIR FORCE

쌍둥이로 태어나서

쌍둥이 하면 으레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마련이다(일관성 쌍둥이에 한하겠지만). 그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이 일단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그림자처럼 가까운 형제가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도 일반인들에겐 너무나 특별한 인연인 것이다.

물론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친구인 쌍둥이들에게도 떨어져 살아야 할 순간은 온다. 대부분의 쌍둥이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또는 (남자의 경우)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기점으로 분리된 각자의 삶을 살게 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 가슴 뿌듯한 일이다. 더군다나 만약에 한 배에서 동시에 태어난 사람이 한 지역 한 부대에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더욱 행복한 일일 것이다.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동일한 부대 마크를 달고 같은 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부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군견소대에서 근무하는 선준(동생)



그곳은 바로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

10전비 헌병대대의 박인준, 박선준 일병(병 601기, 23세)은 같은 부대 마크 달고 행복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형 인준은 지금 10전비 헌병 대대 2소대에서, 동생 선준은 군견소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 동생 선준의 권유로 2003년 11월 10일 동시에 공군에 입대한 형제는 훈련소에서도 집 근처의 10전비에서 근무하기 위해 훈련과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다고….

게다가 특기마저 둘이 똑같이 『헌병』이 되고 나선 얼마나 기뻐는지…, 헌병교육대에서도 같은 내무실을 쓰면서 끈끈한 전우애를 쌓을 수 있었다.

형제가 함께 지키는 비행단

소정의 훈련을 무사히 마친 쌍둥이는 지난 1월 꿈에도 그리던 10전비 헌병대대에 나란히 배속 받았다. 비행단에서 인준 일병은 기지방호 작전을 담당하는 경비소대에, 선준 일병은 평소 동물을 좋아하는 성격에 맞추어 군견(軍犬)반에 배치를 받았다.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기지방호 작전에 일조하며 늘 환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인준 일병과 군견과 함께 야간에 항공기를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준 일병이 지키는 활주로는 항상 안전하다.

각별한 형제애, 자랑스런 공군인

더운 여름 날씨에 태양과 아스팔트의 열기 속에 경비의 임무를 다하는 형의 건강을 챙기는 동생 선준의 마음과 의연히 동생에게 하는 안부의 인사는 듣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여운을 남긴다.

5분 먼저 세상 빛을 보게 되어 형 소리를 듣는 인준 일병은 “항상 『형』이라고 불러주는 선준이가 대견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군 생활을 형하고 같이 할 수 있어 늘 든든하다”고 말하는 선준 일병. 둘의 오가는 눈빛은 참으로 정겹기만 하다. 활동적이면서도 영화나 음악감상을 즐기는 성격까지 비슷한 두 형제는 『국가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군에 입대한 만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공대공 미사일

(Air-to-Air Missile)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미사일이란?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명중시키기 위하여 외부의 지령이나 자체 내부의 기계적 작동에 의해 목표에 접근토록 설계 및 제작된 물체를 말하며, 자체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로켓과 같지만 자체조종면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유도된다는 점에서 로켓과 구분된다.

미사일은 통상 비행체, 추진기관, 탄두, 유도장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용방법에 따라 공대공/공대지/지대지/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호에서는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공대공 미사일의 출현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은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2차대전 말기 독일이 축적된 로켓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X-4로 볼 수 있다. 2차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독일의 로켓기술은 미국과 소련에 넘어 갔고 이때부터 실용화를 향한 본격적인 미사일 개발이 미·소 양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10년여에 걸친 미·소 양국의 개발 경쟁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1950년대 후반이 되면 동·서 양 진영 모두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된 항공기를 실전에 배치하게 된다.

공대공 미사일의 출현은 공중전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고, 전투기 설계 및 성능개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공대공 미사일은 포클랜드 분쟁, 레바논 전투 등을 거치며 그 중요성을 확실히 증명해 나간다.

공대공 미사일의 변화

공대공 미사일은 열추적 (Infra-red homing) 방식의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시작하여 중거리 미사일급의 반능동(Semi-active homing) 방식, 장거리용인 능동(Active homing) 방식 등의 순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고 현재에는 복합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작고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작전요구에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동유도(열추적) 미사일 :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오래 되고 널리 사용되어 온 미사일로 항공기의 엔진 배출구에서 나오는 적외선(열선)을 추적하는 형태이다. AIM-9 (Sidewinder) 계열과 ASRAAM, MAGIC, PYTHON 등이 주요 해당 무기체계이다.

· 반능동 유도(레이더 추적) 미사일 : 열추적 미사일의 단점인 짧은 유효사거리와 제한된





전방공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기 장착 레이더와 연동하여 유도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한 미사일이 반능동(Semi-active) 추적 미사일이다. 레이더로 목표물을 포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된 미사일의 추적장치는 목표물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레이더파를 추적해 목표물에 접근시킨다. 대표적인 해당 무기체계는 AIM-7(Sparrow) 계열과 프랑스의 Super 530, 이탈리아의 Aspide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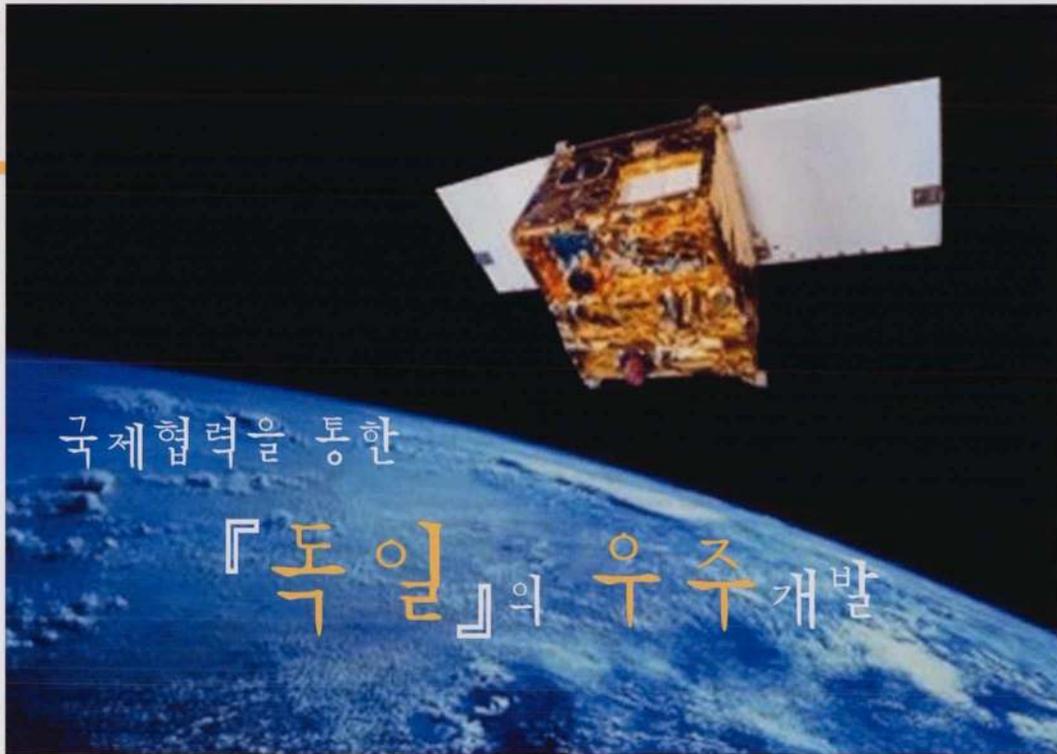
· 능동 유도(레이더 추적) 미사일 : 열추적 미사일의 장점인 『발사 후 즉시 이탈(fire & forget)』 기능은 유지하고, 반능동 미사일처럼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것이 능동유도 방식이다. 미사일 자체에 레이더를 탑재하여 레이더 신호를 송신하고, 목표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최종접근 시까지 미사일이 직접 추적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과거 가시거리 내에서 벌어지던 공중전 형태를 가시거리 외곽(BVR : Beyond Visual Range) 형태 전술로 변형시켰고, 가시거리 밖에서 여러 대의 적기를 추적하며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

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단점으로는 미사일 탄두에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고, 원거리 비행을 위해 용량이 큰 추진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량이 커서 장착기종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미사일 기술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미사일의 중량 및 크기를 줄이면서도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복합형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발사 초기에는 관성항법에 의해 비행하다가 목표물에 근접 후 레이더를 작동시켜 추적케 함으로써 용량이 작은 레이더를 사용하면서도 원거리 요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주요 무기체계로는 미국의 AIM-120(AMRAAM), PHOENIX계열과 프랑스의 MICA, 러시아의 AA-11과 AA-12 등이 있다.

공대공 미사일 발전전망

미 공군과 해군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에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인 AA-11의 성능을 능가하는 AIM-9X를 개발, F-15·F-16 항공기 운용시험을 거쳐 곧 전력화시킬 예정이다. AIM-9X는 다양한 헬멧장착 시현장비와 연동 가능하고 기동성 향상, 광범위한 표적획득 및 적외선 영상탐지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미 공군은 2015년 전력화 예정으로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공군 연구소(AFRL :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에 의하면 본 미사일은 근거리 및 장거리 공대공 능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제한된 공대지 능력도 구비할 계획이다. 일단, 2006년 개발착수 제안이 승인되면, 2010년에는 차세대 탄두와 미사일 기동 기술에 대한 시험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우주무기지원담당

독일의 우주개발은 거의 대부분이 국제협력에 의한 것으로, 우주기술 역시 대부분 국가협력의 활동으로 확보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우주개발은 지구관측, 우주환경 이용, 우주과학을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상대는 ESA(European Space Agency : 유럽우주기관)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모든 국가를 비롯해 러시아, 인도, 일본 등 협력상대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독일은 그 동안 독자의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실시한 실적은 적다.

■ 우주개발 체제

독일에서 국가 우주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은 DLR(Deutsches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 : 독일항공우주센터)이다. (원래 1990년에 설립된 『독일우주기관』이 독일의

우주개발 기획과 관리를 맡고 있었으나, 독일 항공우주연구소(舊DLR)가 1997년에 이를 통합, 독일항공우주센터로 재설립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영 및 재정 조정을 위한 시간 지체가 발생, DLR이란 이름으로 일체화된 조직체계가 분명하게 된 것은 1998년 5월의 일이다.)

DLR에 국가의 자금을 제공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연방교육과학연구기술성이며 우주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 및 계획을 결정하는 기관으로는 내각 우주개발 위원회 및 차관급 우주 위원회가 있다. 또 우주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우주관련 연구조직 및 설비 등 프로젝트 실시담당은 우주담당본부가 하고 있다.

■ 통신·방송·측위 위성

통신위성(DFS-Kopernikus) 시리즈

국내의 전화회선, 케이블 TV의 배선, TV-

Sat의 백업 등에 사용된다. 1989년 이래 총 3기가 발사되었다.

방송위성(TV-Sat) 시리즈

유럽에서 최초의 직접방송위성으로 개발되었다.

1987년 아리안으로 발사된 1호기는 태양전지패널의 전개에 실패하였고 1989년 동일 발사체로 발사된 2호는 발사 성공하여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수명 종료되었다.



서도 시스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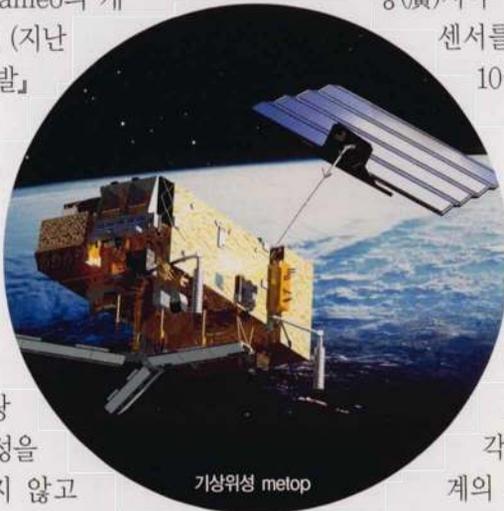
를 담당하고 2개의 센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유럽 최초의 주회형 기상위성 Metop-1(Meteorological Operational) 프로그램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Galileo 위성 시스템

독일은 현재 ESA가 EU 및 유럽항공기 항행 안전기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럽독자의 항행위성 시스템인 Galileo의 개발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호 『유럽의 공동 우주개발』 참조)

지구관측

지구관측은 독일이 중시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특히 센서 개발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독일은 프랑스나 일본처럼 독자의 위성을 개발하거나 발사는 하지 않고 ESA 프로젝트 참가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을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독자적인 초소형·소형위성 개발도 실시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 Bird

92kg급의 지구관측 초소형 위성으로서 기상예보나 화재방지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광(廣)시야 광학센서와 선진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였으며 2001년 10월 발사되었다.

■ 주요센터

독일 항공우주센터 (DLR)

31개 연구소, 시험설비, 운용설비 및 연구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의 8개 도시에 각각 흩어져 있다. 우주관계의 시설은 쾰른·폴츠, 오버파펜호펜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우주운용센터

1968년 설립되었으며 일반적으로 20개의 해외 우주기관 및 국제기관과의 우주기 운용에 관한 협력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미소중력실험 유저시설

ISS(Ionosphere Sounding Satellite : 전리층관측위성) 상의 라이프 사이언스 등 실험준비, 운용, 이용을 지원한다.⬇

ESA 프로젝트 위성

1991년에 발사된 ERS-1(European Remote Sensing Satellite) 개발비의 24%를 부담한 최대의 출자국으로 ERS-1, ERS-2 모두 독일이 주 계약자로서 시스템 전체의 정리를 담당하였다.

또한 유럽의 지구환경 감시위성 Envisat에



남해안 고도(孤島)에서 만난 윤선도의 숨결,

보길도 기행

제1전투비행단 중위 유 태 권

땅끝에서 시작하는 여행

여

행은 끝에서 시작되었다. 위도상 한반도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해남 땅끝마을에 도착한 것은 세 시간여의 긴 버스를 타고 난 뒤

였다. 땅끝임을 알리는 탑이 멀리 보이고 해안에는 멋지게 조각된 바위 몇 개가 이곳이 한반도의 시작이자, 한반도의 끝임을 말하고 있는 듯했다. 여기서 뱃길로 한 시간. 총 네 시간여

의 여행으로 도착한 보길도는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귀양지로 적합한 곳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네 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그곳에... 고산(孤山)은 그곳에 살았다.

고산 윤선도의 귀양지

「내 벗이 몇 인고 하니」로 시작하는 윤선도의 시조 『오우가』는 자연을 벗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외로운 산』이라는 그의 호가 말

해주는 윤선도의 생애를 생각하면 오우가는 인간사에서 친구를 찾지 못하고 자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윤선도의 비애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듯하다. 뛰어난 학문적, 문학적 역량을 가졌던 만큼 현실 개혁 의지 또한 강해 『병진소』라는 상소로 당대의 세력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인이라는 자신의 출신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양가게 되고 보길도에 정착했을 때에는 좌절 또한 심했을 것이다.

장원급제로 관직에 진출했고, 두 왕자의 선생님이기도 했던 윤선도는 경기도 양주 고산에 머물며 자신의 호를 고산(孤山)이라고 붙였다. 그는 병자호란 때 전함과 군사를 이끌고 강화에서 적을 물리치고자 하였으나 이미 적에게 함락된 조선을 보고 제주도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정착한 곳을 부용동(芙蓉洞)이라고 이름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연정(洗然亭), 곡수당(曲水堂), 낙서재(樂書齋) 등을 짓고 살았다. 윤선도

가 보길도에서 산 것은 총 12년 정도 되지만, 그는 보길도의 자연풍광을 사랑했고, 그의 문학적 천재성은 부용동의 낙서재 등에서 빛을 발했다.

세연정(洗然亭)과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세연정(洗然亭)은 윤선도의 풍류가 잘 드러난 정원이다. 길을 만들고 연못을 만든 다음 그 가운데 정자를 세웠다. 정자는 여느 정자와 마찬가지로 사방을 시원스레 터 놓았지만, 생활 공간임을 감안해 사방에 문을 달아 두었다. 그리고 커다란 자연석으로 잔뜩 멧을 부렸다. 세상사의 모든 시름을 이곳에서 잊고자 하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잊으라는 듯했다. 세연정 앞에는 자연석 네 개가 나란히 서 있다. 어부사시사의 시비다. 어부사시사는 사계절의 일상을 담은 시조로 그 사시를 상징하는 네 개의 자연석으로 시비를 만들었다. 보길도 사람들은 세연정의 자연석들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느낌이 거북하지 않았다.

세연정(洗然亭)은 윤선도의 풍류가 잘 드러난 정원이다. 길을 만들고 연못을 만든 다음 그 가운데 정자를 세웠다. 정자는 여느 정자와 마찬가지로 사방을 시원스레 터 놓았지만, 생활 공간임을 감안해 사방에 문을 달아 두었다. 그리고 커다란 자연석으로 잔뜩 멧을 부렸다.



세연정



어부사시사는 보길도에 대한 윤선도의 시선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작품이다. 사시사철 어부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노래하는 어부사시사는 백성들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노동요의 기능도 했다. 조선시대 시조문학을 대표하는 윤선도는 시조를 통해 문학작품의 사회적 기능을 고민할 수도 있었다. 문학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고산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고산 윤선도는 유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노래한 자연은 생활의 자연이 아니라 관조의 자연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고, 일반 민중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문학작품에서 구현되고 있는 자연상이 생활의 자연이 아니라 관조의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시선이 어부사시사에서만큼은 노동하는 인간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곡수당(曲水堂)과 낙서재(樂書齋)

세연정 옆으로 난 길을 타고 올라가면 격자봉을 뒤로하고 곡수당(曲水堂)과 낙서재(樂書齋)

가 나온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곡수당의 터와 낙서재의 터뿐이다. 굽이쳐 흐르는 물이 되고 싶지 않았던 윤선도의 바람을 담은 곡수당에 앉아서 그는 각박하게 살아가는 세인들을 비웃기도 했을 것이고, 펼칠 수 없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또한 곡수당은 윤선도의 자제를 위해 만든 휴식 공간이다. 낙서재 옆에 곡수당을 둬으로써 자식에 대한 사랑과 교육을 동시에 생각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낙서재는 윤선도의 공부방이다. 자신의 공부방을 자연에 두고 싶은 마음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꿈이었던지도 모른다. 한양에서 정쟁에 시달리던 유학자들에게 낙향, 귀양은 새로운 창작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새소리가 들리고, 풀바람이 부는 자연에 하나가 되고자 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학자였던 선비들은 그와는 다른 풍류와 강호가도의 삶을 꿈꾸었다. 그들이 가진 현실의 꿈은 유학을 통해 나라를 자신의 원칙과 철학으로 바꾸고자 하는 데에 있었지만, 이상향은 무릉도원의 도인과 같은 생활이었다. 유학이 그들에게 개혁과 원칙을



가르쳤다면, 도교의 영향을 받은 풍류도는 순응과 동화를 가르쳤다. 윤선도가 보길도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세연정은 바로 이러한 인위와 자연 동화가 조화를 이룬 정원이었다.

새로운 전통의 시작에 서서

보길도는 아직 윤선도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숨결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을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졌다. 세연정은 1992년에 복원이 된 것이고, 낙서재와 곡수당은 아직 공사터만 남아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몇 년 전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옛것을 보전하고 아낀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아낀다는 것도 의미한다. 전통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면 현재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관념 역시 희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늘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 전통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등의 말을 많

이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길은 돌이키고 반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여행은 땅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바닷가 땅끝이 아닌 곳이 없다. 모든 곳이 땅끝이고 모든 곳이 바다의 시작이자 육지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전통의 끝에 서 있다면 우리는 미래의 시작, 새로운 전통의 시작에 있는 것이다. 서두를 필요도 없다. 고산 윤선도가 노래했듯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하며 천천히 노젓듯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도 하나 둘 이룰 수 있고 빨리 가면서 못보게 되는 소중한 풍경도 없을 것이다. 땅끝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윤선도가 보길도에서 땅끝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한 아쉬움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모습이 오버랩되며 끝나가고 있었다.Ⓛ



300년 富者의 비밀



그림 : 김영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치원의 17대 손인 초진립이
가문을 일으킨 "경주 초 부잣집"은
10代, 300년의 세월 동안 만석꾼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富의 비결은 바로 다음과 같은
가훈에 있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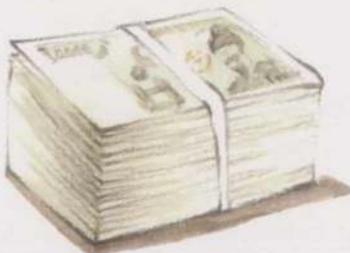
첫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과욕은 화를 부른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에게 베풀어라.

넷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두가와도 되도록 대접하여 귀중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라.



셋째,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아야만 남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넷째,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이 생기는 법이다.
 최소한 사방 10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돈버는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번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자, 정당한 방법
 으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가진 자로서의 사명도
 다하는 부자가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법에 대한 흔한 오해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지귀연

가해자가 무성의하게 나온다든지, 피해 보상에 대한 노력 등이
일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판절차에서 손해배상도 함께 처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동시에,
검찰이나 재판부에 가해자의 무성의함을 비판하는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벌금의 성격이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누구에게 맞아서 다친 경우 결과가 타당치 않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길을 지나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병원에 4주 정도를 입원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피해자는 4주 동안 입원한 입원비와 치료비 300만원과 그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본 액수 300만원, 그리고 정신적 손해와 기타 간호비나 잡비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생각하며 1,000만원 정도를 받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해자는 병원에 처음 몇 번 오더니 30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자 식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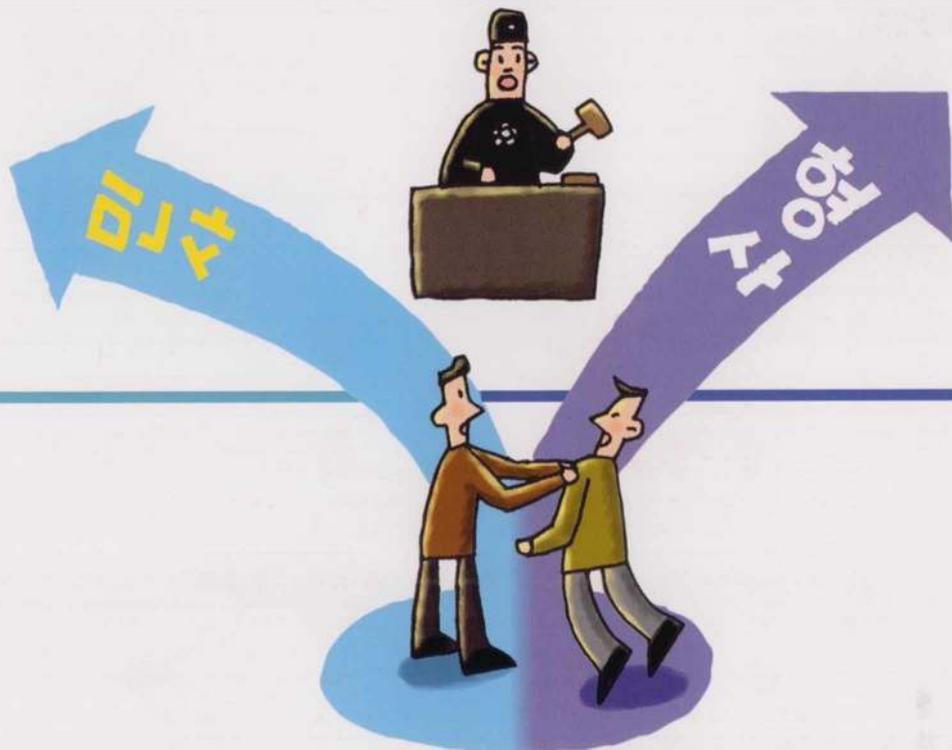
화가 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어디 한번 맛 좀 봐라'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가 다시 한번 만나자고 전화를 하더니 6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며 제발 이것으로 화해를 하자고 사정한다. 고민하던 피해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받

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해를 하지 않고 버티게 된다.

피해자 생각으로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 크기는 정역이요 아니면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은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가해자는 벌금을 받았고, 그 액수는 기껏해야 300만원이 아닌가. 피해자는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가 하고 진작에 화해라도 할 것을 하며 땅을 친다. 가해자는 이미 재판이 끝난 상태라 아예 피해자에게 찾아오지도 않는다.

벌금은 보상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민사와 형사 문제를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받은 금전적 손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내는 벌금은,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절대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돈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점을 모르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금전적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자

보상금을 받기 위한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1,000만원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절차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형사절차는 검사가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의 따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민사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배상문제도 함께 재판해 달라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을 판결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식으로 민사판결을 함께 내린다.

합의협상은 신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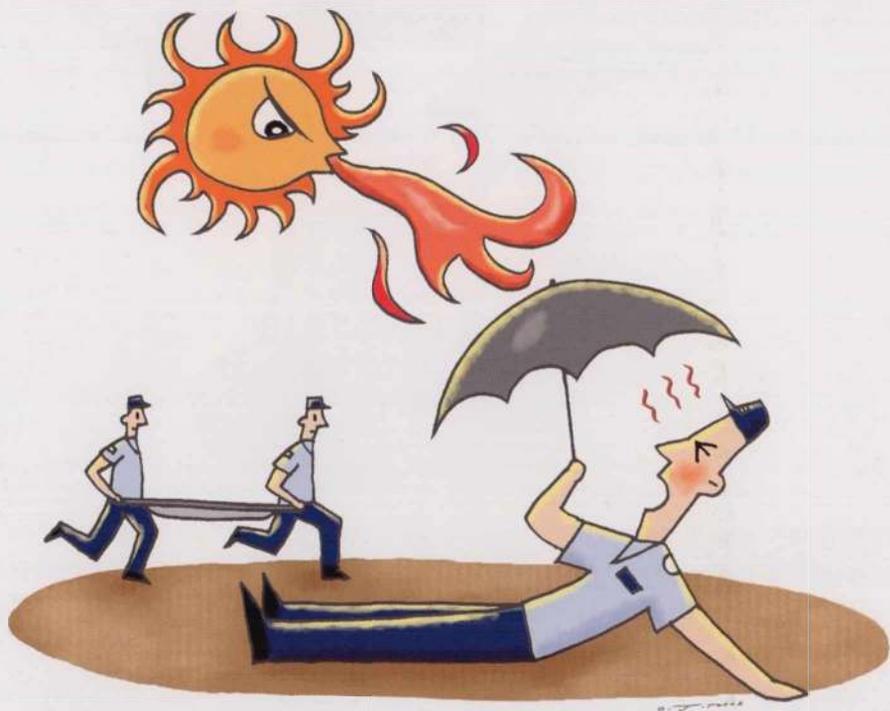
한편,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형사 처벌을 보다 가볍게 받으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으로서, 합의액수가 맞지 않으면 굳이 이에 응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만족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면 손해배상이

모두 끝난 것으로 되어 나중에 민사재판을 할 수가 없어 피해자가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가해자가 무성의하게 나온다면, 피해 보상에 대한 노력 등이 일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판절차에서 손해배상도 함께 처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동시에, 검찰이나 재판부에 가해자의 무성의함을 비판하는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합의를 보는 쪽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에 갖추어진 제도는 유리하게 이용하는 경우 얼마든지 억울한 사정을 털 수 있게 되어 있다. 무조건 제도를 비판하거나 바꾸어야 한다고 외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일이다. 민사와 형사의 구별은 선진 공군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

여름철 건강 지키기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이철민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금년 여름은 최근 10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예보를 접하면서 바캉스를 꿈꾸는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그 피약별 아래에서 묵묵히 일을 해야 하는 장병들에게는 여간 고충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를 적응시키는 능력이 있으나(항상성 유지 능력)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령, 뜨거운 피약별 아래에서 장시간 서 있다가 실신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말초혈관이 확장하고 피가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함

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번 글에서는 여름철 발생하는 온열 손상의 종류와 예방법, 응급 치료법을 알아보고,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덧붙이기로 하겠다.

온열 손상이란?

온열 손상 혹은 열성 질환은 신체가 자신의 적절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는 고온 더운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경미한 종류는 대개 활동의 정도와 관련이 있지만, 심한 것들은 특별한 활동이 없을 때도 발생한다. 그 종류로는 열경련(heat cramps), 열탈진(heat exhaustion), 열실신(heat syncope), 열사병

(heat stroke)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알아보기로 하자.

① 열경련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준비 단계 없이 격렬한 활동을 할 때 발생하며 대개 큰 근육의 경련이 심한데 특히 다리에서 잘 일어난다. 이때 환자의 피부는 차고 축축하며, 체온은 정상을 유지한다. 치료로는 환자를 시원한 곳에 눕히고 휴식하게 하며 적절한 수분과 소금을 공급하는 것인데, 500cc 물에 티스푼의 하나 정도의 소금을 타서 마시게 하거나 생리식염수를 주사할 수도 있다. 이때 정제 식염을 먹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② 열탈진

열탈진도 고온 환경에서 준비 단계 없이 활동을 할 때 발생하며 부분적으로는 체내 염분과 수분의 손실에 의해 발생한다. 환자는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힘없음, 과민함, 경련 등을 호소하는데, 이 때 환자를 살펴보면 식은땀을 흘리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며 체온은 정상이거나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치료로는 열경련과 마찬가지로 시원한 곳에 눕히고 휴식하게 하며 부채질이나 선풍기를 틀어 열을 발산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 환자의 구토가 심하지 않아 입으로 물을 마시는 게 가능하다면 소금을 넣은 물을 마시게 하면 되지만, 혈압이 많이 떨어지거나 구토가 심하다면 의무실로 후송, 집중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열탈진 후 환자가 회복되더라도 2~3일간은 고온환경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열실신

열실신은 고온의 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래 서 있다가 말초 혈관이 확장되

고 피가 아래로 몰리면서 일시적인 대뇌허혈로 의식을 잃음으로써 발생한다. 의식을 잠시 잃긴 하지만 누운 자세에서 곧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체온은 정상이다(다음에 설명할 열사병과 다른 점이다). 치료로는 시원한 곳에서 눕혀 휴식하게 하고 수분을 공급하면 된다.

④ 열사병

열사병은 온열 손상 중 가장 심하고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수일간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고전적인 열사병**과 고온의 환경에 적응되지 않은 몸으로 갑작스럽게 고온 다습한 곳에서 격렬한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활동성 열사병**으로 나눌 수 있다. 열사병에서는 체온이 40.5℃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의 변화 내지 손실이 있으며 피부에는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할 때가 많다. 체온이 41℃ 이상이면 사망률이 76%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므로 고온의 환경에서 활동 중 의식을 잃은 환자가 체온이 높을 때는 신속하게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피부질환

한편, 야외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뒤에는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검어지는 색소침착부터 두드러기와 노화, 피부암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A, UVB, UVC로 나뉘지는데 이중 UVA와 UVB가 피부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햇빛을 받으면 먼저 피부가 붉어지고 화상을 입기도 하며, 색소가 침착되고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한다. 또, 햇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수포가 생기기도 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햇빛이 화창한 날에는 이른 오전이나 3시 이후에 작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제1전투비행단 색소폰 동아리 『선봉 코러스』

색소폰을 그대 품안에



제1전투비행단 중위 유태권

색소폰 신드롬

『사랑을 그대 품안에』라는 차인표, 신애라 주연의 드라마가 있었다. 이 드라마는 당시 신인급이었던 차인표라는 연기자가 스타급 텔런트로 부상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차인표는 지금의 권상우만큼의 신드롬 비슷한 무언가를 주는 연기자였다. 그러나 차인표가 유명해진 것은 그가 드라마에서 보인 몇 가지 소품들이었다. 그것은 오토바이, 몸매, 그리고 색소폰이었다. 손가락을 흔들던 차인표가 밤에 색소폰을 부는 모습은 못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색소폰을 부는 케니 G의 음악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휴대폰 CF에서도 색소폰을 부는 광고가 등장했다.

1전비 색소폰 동아리, 드디어 출범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에서도 케니 G를 꿈꾸는 장병들이 있다. 테너 색소폰과 알토 색소폰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저음으로 비행단을 울리고 있는 선봉 코러스 색소폰 동아리 회원들이다. 선봉 코러스 색소폰 동아리는 2003년 9월에 처음 기획을 시작해 10월에 본격적으로 모집에 들어가 문을 열었다. 기지 체육관의 조그마한 공간에 동아리 방을 갖추고 연습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영외자 7명이 시작했지만

점차 그 규모를 확장해 영외자 10명과 영내자 2명이 회원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색소폰을 배우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것이 사실이다. 선봉 코러스 색소폰 동아리를 시작할 때에도 그랬다. 많은 사람들은 악기가 고가인데다가 연습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 마당에 어떻게 색소폰 동아리를 만들 수 있겠냐는 말이 많았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길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료로 색소폰을 구할 수 있었고, 기지 체육관에 조출하게나마 연습 장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니 사람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선봉 코러스 색소폰 동아리는 2003년 12월에 대대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현재 선봉 코러스 색소폰 동아리는 매주 강사가 기지에 들어와서 직접 지도를 해 주고 그것을 회원들이 일과 후에 연습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연습장소를 구하는 것조차 무척 힘들었다는 창단 멤버 서범석 중사는 “열심히 연습해서 곡 하나를 멋지게 불고 나면 모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때의 성취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악기를 다뤄



“열심히 연습해서 곡 하나를 멋지게 불고 나면
모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때의 성취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라고 말하며 자신의 색소폰을 들여보였다.

연습은 힘들지만...

색소폰의 경우에는 시작하기도 힘들지만 제대로 된 연주를 하기는 더욱 힘들다. 조금만 연습을 하고 나도 호흡이 가빠져서 현기증이 난다. 또 그것에 조금 적응이 된다 싶으면 입술이 부르르기 시작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한다. 바로 여기가 고비인데,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소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연주를 위한 기초가 잡혀간다. 물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제대로 된 독주곡 하나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몇 달을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다면, 색소폰을 부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선봉 코러스 회원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그들은 매일 점심시간, 혹은 일과 후 시간이면 동아리 방에 모여 함께 연주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량 연마를 한다. 계속되는 비행지원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지만, 색소폰 소리가 석양에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종일 느꼈던 피로도 일순간에 사라진다고 동아리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색소폰 화음 속에 다져진 전우애

음악은 각자가 자신의 음을 내면서 서로 조화를 이뤄 가는 것이다. 같은 소리만으로 이루어지는 연주는 없다. 서로의 차이를 아름다운 조화로 만드는 것이 음악이다. 그래서인지 선봉 코러스 회원들 표정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안정을 볼 수 있었다. “비단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 역시 각기 자신의 일을 하면서 조화를 이뤄 더 큰 업무를 해내는 것이죠.”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군 생활에 더욱 큰 활력을 얻게 되었다는 선봉 코러스 회원들은 곧 케니 G처럼 멋지게 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직 한 번도 동아리 발표회를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선봉 코러스 회원들. 이들은 올 여름과 가을에 두 차례 연주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시선을 마주하며 색소폰을 부는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색소폰으로 전우애를 다져 가는 선봉 코러스 색소폰 동아리의 연주회가 더욱 기대된다. ㉠

7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제2방공포병여단 병장 지인홍

무대를 보는 눈 : 독일현대작가展



로맹갤러리는 독일 외무성 산하 국제교류처와 공동으로, 독일의 유명한 현대 작가들이 미술과 연극의 관계를 작품으로 표현한 기획전 『무대를 보는 눈 : 독일현대작가전』을 8월 8일까지 개최한다.

이 전시를 기획한 연출가이자 큐레이터인 볼프강 스토르히는 작가들에게 자신의 예술 개념에 따라 연극을 해석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연극은 이미지와 개념이라는 원초적 모습으로 환원되었다가 여러 미술 작가들의 눈을 거쳐 다시금 현란한 스펙트럼으로 재창조된다.

사진, 회화, 조각, 설치, 음향과 영상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장르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대 예술과 종합 예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플럭서스의 선봉에서 활동했던 볼프 포스텔에서부터 중국출신 재독 여성작가 킨 유펜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배경이 다른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독일 현대 예술의 다양한 면면을 만나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배우들의 대사와 동작만을 따라가는 연극관람에서 벗어나자. 무대미술 자체의 예술성과 극과의 조화, 흐름 등을 읽을 수 있다면 연극은 분명 더욱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감동을 전할 것이다.

이번 전시는 2004년 일본과 서울 로맹갤러리를 거쳐 2008년까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륙을 순회할 예정이다.

서울 로맹갤러리 8월 8일까지. 관람료 3,000원

문의전화 : 02-2259-7783

연극 - 휴먼 코미디

항상 즐겁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단순히 TV 코미디프로나 신문 유머란을 보면서 채우기란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단순한 언어유희나 억지웃음을 빼버리고 진솔함으로 건져 올린 짜릿한 웃음을 느끼고 싶다면

연극 『휴먼 코미디』를 권한다.

이 공연은 3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족.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만선의 깃발을 펴리며 돌아오던 중 죽는다... 어찌 보면 슬픈 내용 같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웃음이 난다. 웃음과 눈물의 역설적인



만남. 첫 번째 이야기에는 따뜻한 감동의 휴머니티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냉면. 『냉면』이라는 노래를 리얼한 마임연기와 라이브연주로 만든 짭짤한 미니 뮤지컬이다. 일탈된 행위로 유발된 웃음.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폭소난장 추적. 6인 14역의 절묘한 타이밍의 과학적인 연기 변신이 만들어내는 순간 전환과 극적 반전이 절대웃음을 선사한다. 마지막 5분, 무대 뒤의 마술 같은 변신의 비밀을 공개할 때까지 추적의 폭소 반전은 끝나지 않는다.

더운 초여름. 에어컨 바람보다 더 상쾌하고 짜릿한 코미디의 세계에 빠져 봄은 어떨지...

8월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창조콘서트홀에서 공연하며 자세한 정보는 www.humancomed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금 19:30 / 토 4:30, 7:30 / 일·공휴일 15:00, 18:00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미래의 기억(신화와 전쟁) - 서용선 개인展



-전쟁은 신화를 채우고 신화는 역사를 채운다.

역사는 크게 신화와 전쟁으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는 문헌이나 구전에 의한 기록에서부터 전쟁의 현장까지, 이야기로 형성된 역사를 자신의 독특한 감성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작가는 또한 우리 역사 이미지의 복원과 잊혀진 역사의 재현을 통해 우리문화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쟁의 수장(首將)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병사나 의병 등 미미하고 힘없는 존재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작품들은 신화나 전쟁을 미화한 보

기 좋고 색채감 있는 그림들이 아니라 거친 터치와 숨이 막힐 듯한 핏빛 색채를 담고 있다.

작가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 담긴 시각적 신화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신화와 전쟁, 영웅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환상주의와 미화된 이미지로 치장된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 일민미술관 7월 18일까지. 입장료 2,000원
문의전화 : 02-2020-2055

내가



주인공입니다

방송작가 함은선

벌써 며칠째다.

이젠 제법 악취도 풍겼고, 소식을 들은 파리도 곧 몰려들 듯한 기세다.

누가 갖다 놓은 우유인지, 왜 먹다가 방치한 우유인지도 모른 채 우유는 그렇게 며칠째 편집실에 방치되고 있었다.

편집실.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이다. 아니, 방송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사람이 발을 들여놓고 작업을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두 평이 채 안 되는 편집실의 우유는 여전히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고, 냄새는

점차 편집실 밖으로 풍겨 나올 참이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아마도, 며칠은 이렇게 더 방치될 것 같다.

왜냐고? 내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불편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오른다.

2002년, 대한민국이 한창 뜨거웠던 즈음, 월드컵이 있던 바로 그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길거리 응원이 한창이던 때, 친구들 몇 명과 시청으로 나갔다.

햇볕도 뜨겁고 공기는 더웠고, 게다가 주위의 열기는 과히 몸이 데일 정도였던 날이었다. 한 자리 한 자리 앞자리부터 자리는 차 들어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결하겠지』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영화처럼 한 명의 주인공이 짠~ 하고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라며
나를 사회의 조연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 사람들은 서로 조금씩 앞으로 가기 위해 이런저런 눈치도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가장 앞에서, 그리고 가장 시원한 곳에서 경기를 보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었다.

지침과 짜증으로 몇 시간이 흘러갔고, 같은 음악, 같은 응원 속에 경기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응원을 하다보니, 눈앞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응원 깃발이었다. 바람이 불면 괜찮은데 바람이 없는 경우 깃발은 전광판의 1/3 정도를 가리게 되는 것이었다. 깃발 뒤에 있는 사람들의 투덜거림이 시작되었고, 제각기 옆 사람들에게 깃발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분이 흘러도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전광판을 가린 응원 깃발, 눈살을 찌푸려보지만...

그렇게 투덜거림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결국 한참 뒤에 있던 외국인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거침없이 행사 띠를 두른 관계자에게 걸어갔고, 깃발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했다. 몇 마디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보였고 결국 관계자의 손에 의해 깃발은 옮겨졌다. 뒤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외국인은 축구선수보다 더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물론 그날, 승부차기로 아슬아슬하게 축구는 이겼고,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을만큼 즐거운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

무언가 찡~한 것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우리 손으로 옮기지 못한 응원 깃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제각기 불평만 가득한 채 앞장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던 그 몇 분...

만일, 그 외국인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화면의 1/3은 기억속에 담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약간의 비약을 한다면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결하겠지』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영화처럼 한 명의 주인공이 짠~ 하고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라며 나를 사회의 조연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먼저 바뀌지도 못한 채, 아니, 바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바뀌겠지라는 생각... 이제는 그만하고 살자. ⊕

내가 주인공이니까...



폭풍 같은 불거리, 바람 빠진 이야기

투모로우

THE DAY AFTER TOMORROW



다시 한 번, 중요한 건 '크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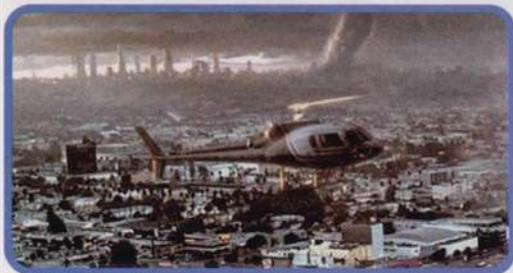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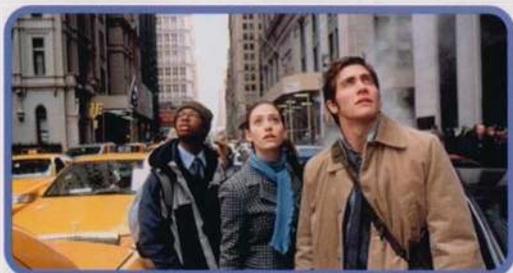
『크기』의 감독 롤랜드 에머리히의 새영화 <투모로우>는 전작 <고질라>에서 호들갑을 떨었던 크기 자랑은 농담이었다는 듯 엄청난 스케일로 지구를 초토화시킨다. <인디펜던스 데이> 때 불길로 뒤덮였던 로스앤젤레스와 <고질라> 때 거대 괴물의 발바닥에 깔아뭉개졌던 뉴욕 맨해튼을 <투모로우>는 『쌍끌이』로 뒤집어엎는다. 파괴의 장본인은 외계인도 괴물도 아닌 자연현상.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우박과 폭설, 토네이도와 한파를 일으키고 이 자연현상들은 폭탄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다.

세계를 강타한 기상이변

기상학자인 잭 홀 박사(테니스 퀘이드)는 남극 탐사 도중 기상이변을 감지한다. 그는 국제 회의에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해류를 바꾸고 낮아진 수온이 빙하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대책을 촉구하는 그의 경고를 미국정부는 무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속도로 지구 전체에 기상이변이

찾아든다. 에머리히 감독은 전작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구촌 리포트 형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자연의 재앙을 모자이크한다. 더운 나라 인도 뉴델리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일본 도쿄에서는 수박만한 우박이 쏟아지며 영국에서는 악천후로 불시착한 헬기 조종사가 문을 열고 내리는 동시에 얼음조각처럼 얼어붙는다.

여기에 얼어 붙은 뉴욕에 머물고 있는 아들 샘(제이크 길렌할)을 구하러 가는 잭의 눈물겨운 부성이 보태지고, 샘과 급우 로라(셀라 워드)의 감동적인 사랑이 추가되지만 이 내용은 순전히 관객취향에 따른 『옵션』사항이다. 진짜 주인공은 전작들에서보다 커지고 정교해진 재난의 스펙터클. 산꼭대기의 『할리우드』 거대 입간판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이 되는 고층건물들이 토네이도로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장면들과, 폭설과 한파로 자유의 횃불 대신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있는 형상이 된 자유의 여신상, 맨해튼 한가운데까지 떠내려온 러시아의 대형군함 등 할리우드와 월가라는 미국의 심장부를 향해 가차없이



가해지는 공격은 단순한 볼거리 이상의 묘한 정서적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인디펜던스 데이> 때 전세계를 구출했던 미국 대통령은 한파에 얼어죽고,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의 『성벽』이었던 미국-멕시코간 국경은 난민이 된 미국인들로 아수라장이 된다. 난민대장이 된 부통령이 자신들이 팔시했던 제3세계 국가들에게 사과하는 장면까지 연출된다. 감독으로서는 유치한 『전향』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장면들이 미국 바깥의 관객들에게는 이 영화의 특별한 볼거리가 됨에는 틀림없다.

철저한 오락영화

흥미롭게도 <투모로우>는 자연 재앙을 극복하고 평화를 되찾는 인간의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전형적인 영웅 모험극이나 지겨운 애국주의적 영화를 거부한다는 사실은 장르 영화로서 <투모로우>의 새로운 점이라 할 만하다. 드라마의 초점은 잭 홀 박사가 아들 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여기에 공공 도서관에 발이 묶인 샘과 그의 친구들이 생존을 모색하는 에피소드가 맞물린다. 환경 위기에 대한 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방식을 꼬집고,

고위 권력자를 오만하고 우유부단하게 묘사하는 등 블록버스터로선 나름대로 새로운 시선도 눈에 띈다. 물론 미국 만세를 외치지 않는다고 해서 <투모로우>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진보적이라고 할 수 없다. 어차피 관객이 기대하는 건 계몽이 아니라 오락이며 <투모로우>는 그에 착실히 부응한다.

시각적 볼거리 빼면 볼 것 없는 영화

그러나 관객의 입을 짝 벌여지게 하는 으리 으리한 스펙터클이 오락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관객들에게 <투모로우>는 다소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약간의 러브스토리를 가미했지만, 이런 모티브들은 압도적인 재난 시뮬레이션에 눌려서 황급하게 화면 밖으로 휩쓸려 버린다. 그 밖의 이야기들도 이런 장르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상투적인 감이 없지 않다. 과학자는 늘 예언자이자 선각자이고 정치인은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한 나머지 이를 무시했다가 화를 입는다. 물론 재난영화의 감동 안전장치는 인간의 숭고한 투쟁이고, 그에 값하듯 아버지는 위기에 빠진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배우들은 그저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소품』이거나 너나없이 몸을 던져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영웅』 정도로만 활용된다. 메시지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극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교훈적이고 설득적인 연설로 황급하게 마무리된다. 무엇보다도 <고질라>를 보고 용두사미격의 전개에 실망한 관객들에게 <투모로우>는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줄지도 모른다. 「만약에 지구가 환경문제로 말미암아 얼음 더미로 뒤덮인다면」이라는 가정을 실감나게 연출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다. 결국 관객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함께 보았던 지난날의 여름과 비슷한 여름을 이 영화와 더 붙어 맞이하게 된 셈이다. ㊦

7월의 공군 역사



F-51 무스탕 전투기 인수(1950)

한국전쟁 발발 당시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L-4/5 및 T-6 항공기로는 남하하는 북한군 탱크를 파괴할 수 없었다. 공군은 미 극동군사령부에 전투기 원조를 요청하여 1950년 6월 26일 공군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을 포함한 10명의 조종사를 일본의 『이다즈께』 기지로 파견, 단기간의 F-51 기종전환 훈련을 마치고 7월 2일 F-51 전투기 10대를 직접 조종하며 현해탄을 건너 대구기지에 도착하였다.

한국공군은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F-51 전투기로 1950년 7월 3일 대구기지에서 출격을 개시한 이래 여의도, 평양, 미림, 강릉기지로 이

동하면서 휴전시까지 후방차단 및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8,500여 회의 출격을 기록했다. F-51은 1957년 6월 27일 퇴역하였다.



작전사령부 창설(1961)

공군은 1955년 6월 20일 F-86 제트전투기 도입을 시작으로 공군력 증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 규모가 커지고 지휘의 폭이 급격히 신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투작전 임무부대를 통합하여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1년 7월 1일,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게 된다.

창설 당시 2개 전투비행단, 2개 비행전대에 불과하였던 작전사령부는 2004년 현재 남부전투사령부, 방공포병사령부, 제30방공관제단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전투비행단들의 전력을 지휘 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공방위 임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

- | | |
|---|---------------------------------|
| 7. 1 항공병학교 창설(1952, 대전) | 7. 3 대방동 공군본부 준공(1956, 서울) |
| 7. 1 작전사령부 창설(1961, 오산) | 7. 8 을지포커스렌즈 최초 실시(1977) |
| 7. 1 김포기지 교통부 이관(1961) | 7. 9 UH-1B 헬기 도입(1977) |
| 7. 1 주월 한국공군지원단 창설(1967, 월남) | 7.10 제151전투비행대대 창설(1969) |
| 7. 1 제5전술공수비행전대 창설(1971, 김포), 제35전술공수비행전대로 개칭(1976) | 7.12 항공창사령부 해편, 군수사령부 창설(1966) |
| 7. 1 초동비행 훈련기 교체(O-1A→T-41B)(1972) | 7.15 공군대학 창설(1956, 여의도) |
| 7. 1 자동화 방공체제 작전운영 개시(1985) | 7.15 제31중앙방공통제전대 창설(1983) |
| 7. 1 육군방공포병 공군으로 전군(1991) | 7.16 H-19D 헬기 도입(1958) |
| 7. 1 제288전자전투대대 창설(1999) | 7.18 공군본부 계룡대 이전(1989) |
| 7. 1 남부전투사령부 창설(2003) | 7.27 한국전쟁 종전(1953) |
| 7. 2 F-51 무스탕 전투기 인수(1950) | 7.28 국산 경항공기 새매호(PL-2) 제작(1972) |
| | 7.30 상륙수부대 소말리아 파병 공수지원(1993) |

여름철 전기도둑을 잡아라!

- 효과적인 에어컨 사용법 -

『자전거의 도시』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 시(市). 이 도시에는 유난히 많은 나무와 잔디, 담쟁이덩굴로 덮인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 녹지화 사업은 오늘날 30도가 넘는 날씨에 별다른 냉방 장치를 가동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물들을 식혀주어,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여름의 전기도둑

얼마전, 올 여름엔 중국에 전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있었다. 전기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내 각 지역에 제한송전이 불가피하며 올 여름이 중국 전력 공급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에어컨 1대가 소비하는 전력은 선풍기 30대를 사용할 때와 대등하다. 전국의 에어컨 온도를 1℃만 낮춰도 84만kw의 전력을 절약함으로써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약 2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되었다.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법

그렇다고 찌는 듯한 한여름에 에어컨을 가만히 모셔두고 쳐다만 봐야 하는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에어컨이라면,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끼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어떨까?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 선풍기도 함께 사용해 보자. 『에어컨도 전기를 많이 먹는데, 선풍기까지?』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 커튼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해 주고 바람의 방향과 같이 선풍기를 작동하면 20%~30%의 추가적인 냉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활 속의 실천방법

데이비스 시가 건물 주변에 나무를 심고, 담쟁이덩굴 등으로 건물을 덮어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비록 그들과 같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찌는 듯한 여름철, 작은 부채라도 하나씩 들고 다니며 한여름을 보낸다면, 이 또한 생활 속에 작은 실천 방법이 아닐까.Ⓢ



우리들만의 축제

『사병의 날』

제3훈련비행단 사병 윤영웅



단장님께서 내가 매일 아침 해오던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매일같이 보아오던 단정한 비행복에 빨간 머플러가 아닌 앞치마와 행주를 손에 쥐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배식을 하고 계셨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공군!

오늘은 정말 이 구호를 크게 한 번 외쳐보고 싶은 날이다. 오늘이 바로 우리들의 축제! 『사병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어버리라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우리들의 축제였다. 제3훈련비행단 모든 병사들의 환한 미소와 초록의 잔디밭, 그 위에 쏟아지던 햇살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 같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행주를 손에 쥔 단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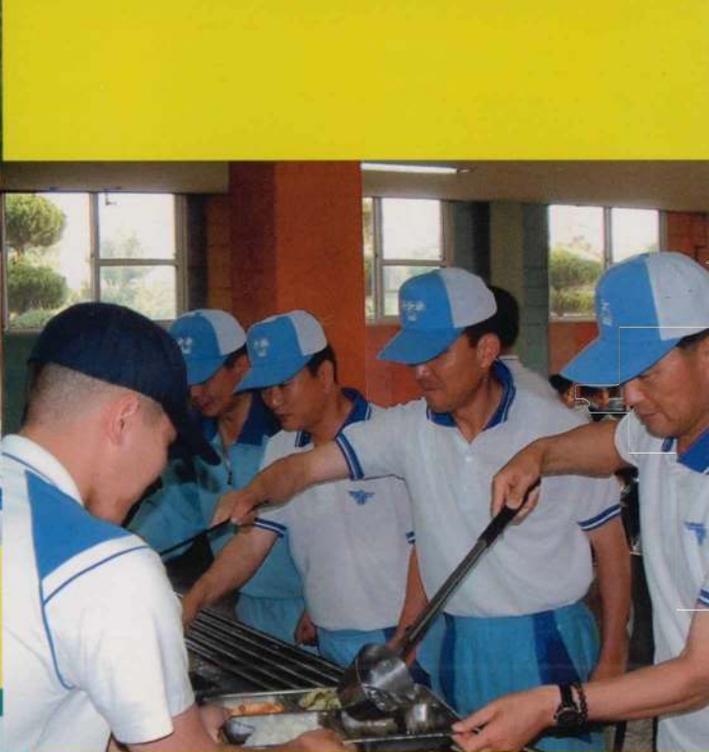
평소에는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오늘은 병사들이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동기들과 함께 아침 점호를 받을 수 있었다. 기쁜 맘으로 아침식사를 위해 들어선 식당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단장님께서 내가 매일 아침 해오던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매일같이 보아오던 단정한 비행복에 빨간 머플러가 아닌 앞치마와 행주를 손에 쥐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배식을 하고 계셨다. 병사들에게 아침식사를 배식해주며 『즐거운 하루 되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다. 식당 근무와 초병 근무 등 반드시 해야 하는 근

무를 오늘은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병의, 사병에 의한, 사병을 위한

『사병의, 사병에 의한, 사병을 위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영내 사병 자체적으로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다 보니 프로그램이 훨씬 다채롭고 이색적이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퍼레이드, 4인 5각 릴레이, 닭싸움, 꼬리잡기, 건빵 및 병맥주 빨리 먹기 대회 등의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나도 자전거 퍼레이드 대회에 출전하여 멋지게 꾸민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하면서 우리 기지지원전대의 특색을 알리는데 한 몫을 했다.

각종 경기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애인 업고 달리기! 『사병의 날』을 위해 가족 및 애인들이 초청되어 우리와 함께 부대 안에서 행사를 즐길 수가 있어서 지친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오후에 개최됐던 『여장 콘테스트』에 출전한 병사들은 행사에 초청된 가족, 연인, 친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기도 하였다. 각 대대에서 최고의 꽃 미남으로 선발된 병사들이



예쁘게 꾸미고서 무대 위에 올라 각종 개인기와 화려한 댄스 실력을 공개했다. 너무나도 현란했던 옷차림, 여자보다 더 예뻐던 분장 아닌 분장,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 해도 손색이 없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화려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밴드 동아리의 공연! 병사들 모두 신이 나서 같이 뛰고 소리 지르며 찌든 일상 속에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렸다. 땀으로 온몸을 흠뻑 적시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땅이 꺼질 듯이 뛰면서 2002년 월드컵 때의 하나되었던 감동이 제3훈련비행단에서 다시 재현되는 듯했다.

추억으로 간직될 보석 같은 기억

오늘을 위해 한 달 전부터 함께 모여서 행사

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시간들, 그리고 『사병의 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단장님을 포함한 비행단 간부들이 있었기에 이처럼 멋진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기본업무를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느라 시간과 여건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행사 진행을 통해 부대 내에서 우리들이 직접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아도 화려한 색채로 치장하지 않아도 늘 한결같고 변함없는 이곳 제3훈련비행단! 오늘 행사는 군 생활 중 작은 보석으로 가공되어 맘속 보물상자에 깊이 간직 될 것이다. ⚡

연금술사

신비한 왕의 조언을 받아 자신이 안주하던 양치기란 직업을 버리고 피라미드를 향해 여행하는 주인공 산티아고는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그를 현실에 붙들어 놓으려는 안락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의 꿈을 나타내는 표지들이 나타나며 결국 이 표지를 따라간 산티아고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모험

한 목동이 꿈속에서 신비로운 계시 혹은 표지를 받고 자신의 보물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 『연금술사』는 어떻게 보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처럼 단순한 삶의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한 우화라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으며 덜 교조주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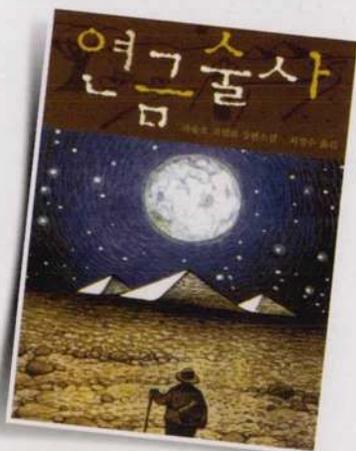
작가가 하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단어와 유려한 문장 등으로 인해 얼핏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낯이 황금이 되려면 고단한 자아의 신화가 필요하듯 인간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그런 자아의 신화를 따라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도전을 위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바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꿈의 실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성공담의 주인공들 대부분은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보물을 통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아닌,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성공』이라는 보물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아닌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한 도전의 계기가 되는 신비한 왕 - 펠키세텍을 만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책이라는 보석과 같은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으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아마 이 책 『연금술사』도 그런 보석을 담고 있는 책 중 하나가 아닐까? Ⓣ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작가소개

파울로 코엘료

1947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25세 때 연극 연출가 겸 TV 극작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대중음악의 작곡·작사가로도 명성을 떨쳤다. 1987년 소설 『연금술사』의 대성공으로 단숨에 세계적인 작가의 명성을 얻는다. 이후 『브리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가히 코엘료 신드롬이라 할 만한 현상을 낳고 있다.

기상 재해가 많은

7월에

제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7월, 장마와 무더위의 달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고 폭염이 내리찍는 7월. 녹음은 짙어가고 여름 과일들은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간다.

중부지방에 걸친 장마전선은 7월 하순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을 한반도 북쪽으로 밀어내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혹서기가 시작된다. 평균기온은 22℃에서 30℃로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강수량은 270mm로 연중 가장 많은 비가 온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최근 10년간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108회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6월이 18회, 7월이 41회, 8월이 49회로 7월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총 13조 원이었는데 그 중 7월이 3조 천억 원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8월이 7조 3천억 원으로 56%를 기록하고 있다. 7월과 8월이 전체 피해의 86%를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이 달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한편, 7월은 무더위와 높은 습도(濕度)로 인한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 발생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니 장병 모두는 개인 건강에도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날씨 변화도 많은 시기이니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절기로는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가 7일이고, 가장 더운 시기인 대서(大暑)가 22일이다. 그리고 초복(初伏)은 20일, 중복(中伏)은 30일이다.

청포도가 익어 가는 7월은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다.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며 고온다습(高溫多濕)한 기상상태는 불쾌지수를 끌어올린다. 생체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런 기상조건에서 폭력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지휘관들의 세심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며 또한 장병 모두는 서로 배려하고 도우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

독자의 소리

이번 호도 너무 유익하고, 때론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공군의 모습이 점점 친근해짐은 편집자님의 많은 노력과 저의 애독(?) 덕분이겠지요?^^ 늘 애독자로 남으며, 공군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경북 안동시 용상동 장낙희

『세계의 우주력 - 유럽의 공동우주개발』을 가장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매번 잘보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알 수 있고 좋은 글귀도 많아 참 좋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하세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진연주

항상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다양한 소재와 구성으로 내용 역시 알차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공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궁동 이현숙

『Zoom-In - 컴 안에 전장(戰場)이 있다』를 통해 영공을 지키는 공군의 전투력이 사이버 세계에서도 철통같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사이버 가상공간에서도 침입한다는



뉴스를 접했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불안이 해소됐습니다.

울산시 남구 달동 오성권

『공군』을 처음 접하는 새내기 독자입니다. 『공군』에서는 사람 사는 향기가 물씬 나서 참 좋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향기를 내는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은 아직 살아갈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내용으로 삶의 단비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남 목포시 연산동 김우영

항상 마감에 시달리고 공군 홍보를 위해 힘쓰시는 편집자님들 항상 건강하고 더욱 발전하는 공군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강원도 강릉시 학동 백정훈

『그림 이야기 - 나라에서 준 돈이기에』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은 날을 바친 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 충주시 금가면 황현찬

F-51무스탕에 관한 글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한국 공군의 탄생과 한국전쟁의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실 무스탕이 어떻게 도입된 것인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거의 몰랐던 내용이었었는데 이번 글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최형열

이번 여름이 지나면 어느덧 전역일이 옵니다. 올 여름은 상당히 더울 거라던데 월간 공군에서 재미있고 시원시원한 기사들로 여름을 멋지게 보내게 해주세요. THANKS~

충북 충주시 금가면 최대욱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2006.5.31
재501군사우체국
제 1 호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31~7, 02) 506-6231~7

2004. 7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다른 그림 찾기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2004년 공중전투지원평가대회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지난호 정답



▶ 지난호 당첨자

- 대구시 동구 봉무동 김동현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이영현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정진성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김민주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최광균
- 대전시 유성구 궁동 이현숙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엄태진
- 경북 안동시 용상동 장낙희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최형열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황여찬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7월 20일까지

마포불백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안정훈



마 포갈비는 들어봤어도 마포불백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마포불백은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의 왕선배라고 보면 된다. 백수 중에는 화려한 백수 ... 화백이 최고다. 백수 중 제일 불쌍한게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 마포불백이란다. 마포불백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역시절 누구보다 소신이 강하고 능력이 탁월하여 상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잘나가던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처음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하바드표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하바드란 하는 일없이 바쁘게 드나드는 사람의 준말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라는 곳도 가야 할 곳도 마땅치 않아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부인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좋아하지만 곧 애물단지로 여긴다. 차라리 얼굴보기 힘들었던 옛날이 그리워진다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처량하고 약해지는 남편

얼마 전 전역한 선배께서 백수생활을 잘 하려면 마누라 모르게 비자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뼈저린 체험담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퇴직한 동기들과 골프 한번 치러 가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마누라 눈치 봐야 하는 게 비자금 없는 백수의 비애란다. 심지어는 부인한테 골프비용 좀 타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다 안 되자, 화가 나서 자기의 골프채를 꺾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골프 치면 사람

이 아니더라고 외친 마포불백도 있단다.

나이 먹을수록 부인은 세지고 무서워지는데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처량하고 약해진단다. 우스개 얘기겠지만 부인이 곰국 끓이면 장기출타의 예고라 긴장하고, 이사 간다고 하면 강아지 안고 트럭에 먼저 올라타서 눈치 본다.

역전현상의 원인은 남녀의 성향차이

왜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가?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전화를 하면 몇 시간씩 대화를 한다. 동네 아줌마, 여고 동창, 학부모 모임, 헬스클럽 모임 등 이런저런 네트워크가 많아 나이 들어도 늘 바쁘다. 반면에 남자는 목표지향적이다. 전화도 용건만 얘기하면 끊는다. 모임도 직장이나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퇴직하고 나면 지향해야 할 목표나 공통의 대화거리가 없어 자연스럽게 과거지향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자기주장 강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던 사람일수록 마포불백이 될 확률이 많다.

물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하지만 가끔은 백수가 될 자신의 미래를 한번쯤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화백은 꿈꾸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누릴 수 있다. 적어도 마포불백은 되지 말아야겠다. ☹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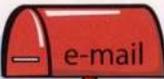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 원고 : 이달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우리 동아리 최고, 장병문예(시·소설·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go.kr, (인트라넷) ksh0450@af.mil

문의 02)506-6233, 호)6233



공군의 최신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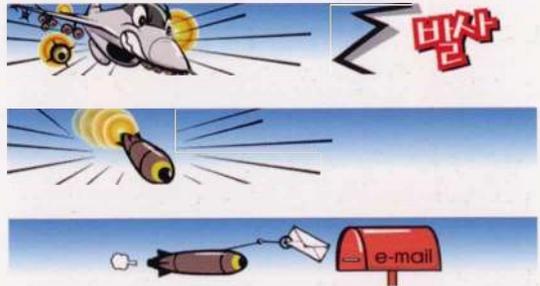
News Letter 에서 만나보세요.

force Newsletter Airforce Newsletter Airforce

공군에서는 지난 해 6월 5일 주간 인터넷 소식지 「공군 뉴스레터」를 창간, 공군에 대한 재밌는 소식과 알찬 정보를 네티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공군소식, 공군탐방, 테마포토 등 즐거운 정보가 매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공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뉴스레터 보는 법 :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 → 뉴스레터 메뉴 클릭!(수신 신청 가능)



매주 목요일
달신소식 담은 공군 뉴스레터가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세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산림과 수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 소중한 줄 몰랐던 우리의 자연,
이제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깨닫고 소중히 가꿔야 할 때입니다.

